

2007 본부 정책자료집

#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Robert A. Hardie (1865~1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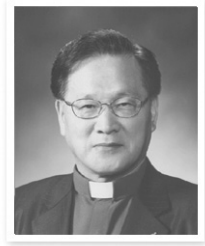
“2007년은 하디 선교사가 주도했던 영적대각성(1903~1907) 100주년의 해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 감리회 신앙고백

1.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2.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승천 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4.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5.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6.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7.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8.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승리와 영원한 하나님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 희망으로 전진합시다



감동회장 신 경 하

2007년 새해에도 기독교대한감리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5,692교회와 150만 8,434명 감리교인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영적대각성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출발은 1903년 8월 24-30일, 원산에서 열린 여선교사들의 소그룹 집회에서 인도자였던 남감리회 하디 선교사가 먼저 은혜를 받음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5년 가까이 지경터(철원)를 비롯해 원산과 강원도 북부지역에서 선교활동을 벌였음에도 그 결과가 매우 실망스러워 좌절감에 빠져있던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슥 4:6)고 하신 말씀에 나오는 그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이 사업실패의 원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성령체험은 원산부흥운동에 불을 붙였고, 결국 1907년 정월에는 평양의 대부흥운동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1903년 3만 명에 머물던 기독교인 수가 1908년 15만 명을 넘어서면서 교세는 급격히 확장하였습니다. 이후 폭발적인 전도운동을 지속하려던 것이 ‘100만명 구령운동’이었습니다. 꼭 100년 전, 이 땅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사도행전의 연속선에서 바라볼 때 성령의 사역이었고, 든든히 서 가는 교회의 산 역사였습니다. 선교사들의 복음전도에서 시작되었으나 비로소 한국인의 입술과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이 토착화되고, 한국인 교유의 신앙형태인 새벽기도회와 통성기도 등이 자리 잡은 것도 부흥운동의 결실이었습니다.

작년 5월 24일, 존 웨슬리 회심 268주년 기념일에 외국인 선교사묘역인 양화진에서 뜻 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로부터 불씨가 일어나 삼천리 방방곡곡을 예수사랑으로 불살랐던 하디 선교사의 영적대각성운동을 본받기 위해 100주년 기념비를 건립한 것입니다. 이 비에는 100년 전의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우리 시대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과 다짐이 담겨있습니다. 제27회 총회에서 선출된 열 분의 연회 감독님들과 함께 첫 감독회의에 앞서 양화진을 방문하여 아펜젤러 한국선교기념비와 하디 선교사의 영적대각성기념비 앞에 헌화하고, 뜨겁게 기도한 것도 같은 의지와 소망이 담겨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2007 본부 정책자료집>을 발간합니다. 저는 이 책에 우리 감리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한 몸과 한 마음으로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를 이루어가려는 비전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감리교회는 가장 연관적인 교회임에도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습니다. 정책자료집은 먼저 본부가 앞장서서 개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모든 감리교인을 향해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또 모든 감리교회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협력하고, 통합하며, 함께 부흥하려는 소망의 발로입니다.

이번 제27회 총회에서 제창한 ‘희망프로젝트’는 또 하나의 공약이 아니라 전도능력을 상실하고,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지 못하는 한국 기독교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마치 하디 선교사가 원산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준비했던 말씀인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요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 14:13-14)는 갈급한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저는 간절한 심령으로 구하던 하디 선교사의 가슴에 성령께서 충만하셨듯이, 우리가 상한심령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11월 말에 열린 정책대회를 마치고 그 후속조치로서 본부 임직원 ‘희망프로젝트’ 세미나에서 9개 분과의 토론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장교회과 일선 목회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더 나아가 생산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 조목조목 토론의 내용을 되풀이 하여 나누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리회 본부는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변화를 재촉하기 위

해 여러분의 고언을 필요로 합니다. 무엇보다 <2007 본부 정책자료집>이 현장에서 반영되는 것은 물론, 다시 본부 정책에 재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마다 정책자료집을 제작하여 개체 교회에 발송하는 곳은 우리 감리교회가 유일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이 우리 감리교회의 희망의 통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8월 23일(목)에는 ‘영남선교대회’가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저는 이 대회가 감리교회 전체의 전도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덩달아 모든 교회의 전도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남선교대회가 하루의 이벤트가 아니라 이를 정점으로 한 해 동안 감리교회 전도 열기를 흡입하고 발산하는 영적각성운동의 구체적인 실천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무엇보다 ‘희망프로젝트’의 금쪽같은 내용들이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닌 평소 우리가 게을리 해 왔던 선교과제를 다시 추스르고, 복음전파의 사명을 재무장하며, 감리교회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강화하는 일용할 기도요, 생활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감리교회가 나날이 새로워지고, 든든히 서 가며, 세계와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07년 1월 1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신 경 하

#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라라.”(호 12:6)

2005년 ⇨ 선교120주년

2006년 ⇨ 세계감리교대회(WMC)

2007년 ⇨ 영적대각성(1903~1907)100주년

## 3대 정책목표

### 1. 나날이 새로워지는 감리교회

영적 대각성운동을 전개해 감리교회를 감리교회답게 한다.

### 2. 든든히 서 가는 감리교회

300만 총력전도운동의 결실화와 사회봉사를 통해 감리교회를 든든히 세워낸다.

### 3. 세계와 세상으로 나아가는 감리교회

세계감리교대회의 성공을 통해 한국 감리교회가 세계선교를 주도하고,  
세상에 흠어져 봉사한다.

## 10대 실천과제

1. 선교 120주년과 민족복음화를 위한 새 비전 창조
2. 300만 총력전도운동과 미자립교회의 자립기반 마련
3. 세계감리교대회 성공을 통한 세계선교강화
4. 미래의 희망- ‘청소년 평화세상 만들기’ 운동
5. 사회선교와 봉사 및 복지 종합시스템 마련
6. 평신도 자원발굴과 참여 확대
7. 합리적인 본부행정과 정보전산화
8. 미래 목회지도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실시
9. 은급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장기적 대안 마련
10. 기본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개발 청사진

## 2007년 본부 주요일정

월	주요 교회력	주요행사	준비
1	주현절(6일) 신년주일(7일) 신학대학주일(14일)	· 영적대각성운동 100주년의 해 · 희망프로젝트 실천위원회 발족 · ‘희망의집’ 인중개시	· 전국교회 “신실한 사람들,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홍보 현수막 동시 게시 · 희망프로젝트 지침서 발간
2	은급주일(4일) 설날(18일) 사순절(2월21일~4월7일) 3.1절 기념주일(25일)	· 연회별 감리교 사회봉사단 조직개시 · 영남선교대회 추진본부 발족	· 사순절 묵상집 발간
3	학원선교주일(11일)	· 연회별 영남선교대회를 위한 전도훈련 · 감리교 목회자 윤리강령선포식	· “신실한 사람들”을 위한 3대 생활실천 자료집 발간 (목회자윤리강령, 사회규약, 감리교인 생활지침)
4	고난주일(1일) 성금요일(6일) 부활주일(8일) 장애인선교주일(15일)	· 연회개최 서울(9~11일) 중앙(10~11일) 서울남(11~13일) 동부(11~13일) 충청(12~13일) 남부(17~18일)경기(18~19일)충북(19~20일) 삼남(24~25일) 중부(26~27일)	
5	어린이주일(6일) 어버일주일(13일) 존 웨슬리 회심기념주일 (20일) 성령강림주일(27일)	· 미주연회(1~3일), 서부연회(14일) · 희망프로젝트 실천을 위한 전국임원대회(16~18일) · 희망투어 시작(인천에서 부산까지) · 존웨슬리 회심 269주년 기념성회	· 존웨슬리 회심 269주년 기 념 주일에배 및 웨슬리영성 자료집 발간 · 희망투어 홍보 자료집 발간
6	평신도주일(3일) 환경선교주일(10일) 순교자기념주일(24일)	· 희망투어계속	
7	맥추감사주일(1일)	· 이준열사 순국 100주년 기념행사 (14일)	· 영남선교대회 참가지침서 발간 · 이준열사 순국 100주년 기념 주일 예배자료집 발간
8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12일)	· 영남선교를 위한 청년·교사대회 · 영남선교대회(23일) · 희망투어종료 · 본부정책협의회(27~28일)	
9	교회연합주일(9일) 기독교교육진흥주일(16일) 청년주일(23일) 추석(25일)		· 장단기발전위원회 백서발간
10	세계성찬주일(7일) 종교개혁주일(28일)	· 제4회 감독회장기 어린이축구대회(3일) · 제27회 총회 입법의회(23~25일)	
11	추수감사주일(25일)		· 2008 본부정책자료집 발간 · 강림절 묵상집 발간
12	강림절 첫주일(2일) 군선교주일(2일) 성서주일(9일) 성탄절(25일)	· 희망프로젝트 보고회	





발간사	3
-----	---

## 1부.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희망프로젝트’ 개요	12
본부 · 연회 · 지방 · 개체교회 지침	23
‘희망프로젝트’ 본부 실천방안	26
목회자 윤리강령	47
감리교인 생활수칙	50
10대 실천과제(2005~2008년)	55
본부 정책과 행사기획 지침	83

## 2부. 각국 정책 및 업무

선교국	87
교육국	129
사회평신도국	181
사무국	215
홍보출판국	263
교육훈련원	279
비서실	303

## 3부. 주요통계와 일정

기초 통계자료	334
연합기관 파송 현황	352
본부 주요업무 일정	359
제27회 총회 정책분과위원회 보고서	372
정책대회 분과 보고	381
2005~2006년 주요문서	393



1부

#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희망프로젝트’ 개요

본부 · 연회 · 지방 · 개체교회 지침

‘희망프로젝트’ 본부 실천방안

목회자 윤리강령

감리교인 생활수칙

10대 실천과제(2005~2008년)

본부 정책과 행사기획 지침

## 감리교 ‘희망 프로젝트’ 를 제안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영적으로 쇠퇴하고, 기독교 선교가 힘을 잃은 오늘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호 12:6)를 선언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WMC를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한국감리교회의 저력을 세계감리교회에 널리 알렸다면, 이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복음전도에 전심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2006년 통계청의 종교인구 조사보고 자료는 개신교회의 교인수 14만 4천명 감소라는 충격을 던져 주었습니다. 타 종교의 성장과 달리 개신교회의 쇠퇴는 교회의 전도방식과 열심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이를 극복하려는 감리교회의 의지가 담긴 ‘희망 프로젝트’는 영적으로 각성하고, 다시 부흥할 능력을 얻으며, 세상에서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 위한 ‘희망 전략’입니다. 우리는 감리교회의 브랜드 강화와 이미지 개선을 통해 세상을 더욱 바르게 섬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희망 프로젝트’는 장단기발전위원회와 본부 정책협의회를 거쳐 본부 임원회가 입안하였고, 10개 연회와 평신도 단체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제27회 총회에서 모든 감리교회가 참여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추진운동본부 조직과 예산마련 그리고 감리교회 전체의 참여와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 5,692 교회와 150만 8,434명의 감리교인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열심을 모읍시다.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를 위해 우리가 먼저 희망의 발전소와 용광로가 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뜨거운 가슴으로 이 시대에 영혼구원과 민족구원을 위한 가장 중심된 교회로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 1. 비전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 2. 주제성구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호 12:6)

## 3. 감리교인 신앙적 특징

‘신실한 사람들 faithful members(FM)’

## 4. 목적

감리교회는 다시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감리교회는 역사를 선도하는 시대를 이끌어 온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현재 감리교회는 시대와 세상에 대한 주도적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내외적 환경과 상황은 기독교인의 감소, 비기독교인의 교회에 대한 반감의 증가 등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타종교에 비해 기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것은 교회가 신뢰를 잃고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리교회는 훌륭한 장점으로 가득합니다.

감리교회는 다른 교파와 달리 하나의 교회요, 유기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적이고 공동체적인 평신도가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 유산과 전통이 있습니다. 이제 웨슬리 영성 회복을 통해 그 뜨거움과 경건함을 회복한다면 이 시대에서 우리를 통해 교회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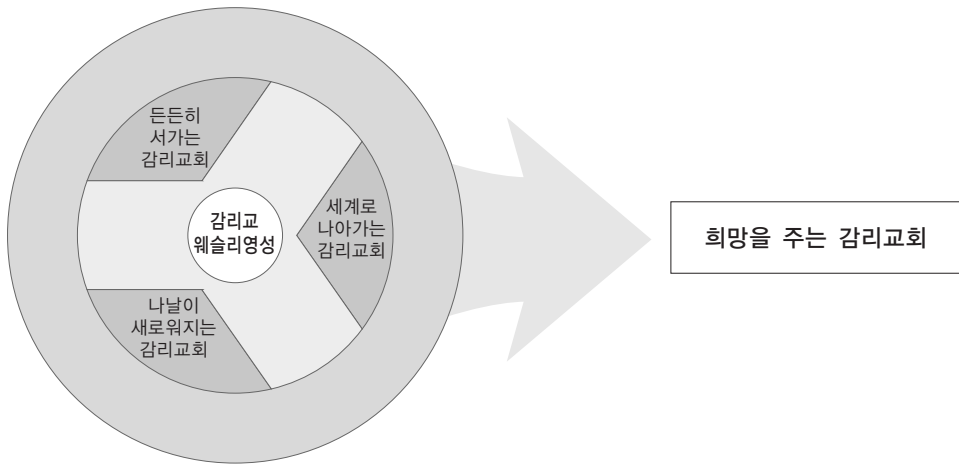
감리교회의 에너지를 희망으로 모아냅시다.

그러나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감리교회의 비전이 구체적이지 못하였고 한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감리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긍정적인 열정과 비판을 하나로 묶어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안될 것이라는 생각을 바꿉시다. 지도자들과 우리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어 봅시다.

감리교회, 희망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감리교회가 합심하고 협력하여 신실함을 회복함으로써 전체 기독교의 이미지를 갱신하고 민족과 사회를 향해 강력한 희망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일과성 행사가 아닌 보다 영적이고 보다 미래지향적이며 보다 능력 있는 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 5. 3대 정책목표



#### 1) 나날이 새로워지는 감리교회

이것은 감리교회가 영적각성과 실천으로 갱신되는 영성운동입니다. 감독회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감리교회의 영적각성의 불을 일으키고, 모든 교인들이 감리교인다운 신실한 생활에 참여하며, 영남지역에서 전도의 열기를 불러 넣으려는 것입니다.

#### 2) 튼튼히 서가는 감리교회

이것은 감리교회가 튼튼히 서 가기 위한 교회부흥운동입니다. 전도운동과 교회성장, 개체교회 간 협력과 연대를 통해 서로 승리하는 감리교 동역운동입니다. 목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좌절과 패배의식에 빠진 목회현장에 희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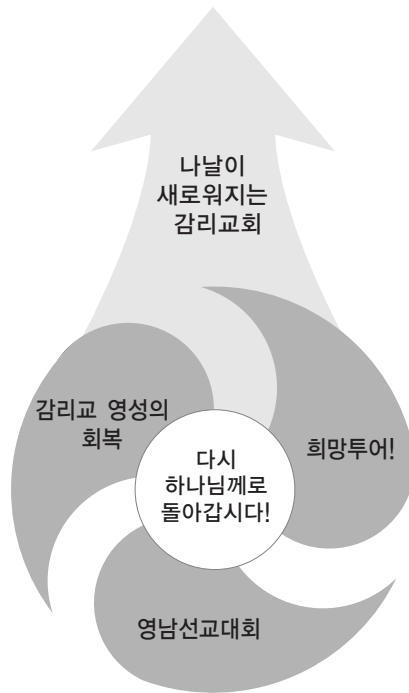
#### 3) 세계와 세상으로 나아가는 감리교회

이것은 감리교회가 세계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교전략입니다. WMC의 성공적 개

최를 디딤돌로 삼아 복음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개별적인 사회봉사와 복지사업을 감리교회 전체 성과로 한데 묶어내어 감리교회 봉사운동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6. 9대 실천프로그램

### I. 나날이 새로워지는 감리교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 1-1. 감리교 영성의 회복!

**감리교회다운 신앙정체성을 강화하고, 웨슬리 영성으로 다시 무장합니다.**

첫째, 웨슬리영성의 회복으로 감리교회 영성을 회복한다.

- ① 첫 출발로 정책대회(11월 23-24일)를 열고 웨슬리 영성회복과 희망 프로젝트를 결의한다. 이어서 연회 별로 정책세미나를 열고 추진을 확산한다.
- ② 2007년 영적대각성운동 100주년을 맞아 영성회복과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
- ③ 웨슬리 영성 수련학교를 상설화한다.

둘째, 감리교인 생활실천으로 영성과 경건생활을 회복한다.

① 목회자 윤리강령 제정과 실천 : 절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목회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감리교 목회자의 경건과 품격을 높이고 성직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② 감리교회 사회규약 제정과 실천 :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신앙적 사회윤리를 정립하고, 한국감리교회의 입장을 천명한다.

〈보기〉 양극화, 농촌과 생명농업, 인구, 고령화, 핵, 창조질서보전과 환경, 가정, 이혼, 성, 생명윤리, 노동, 직업의식, 부, 빈부격차, 경제윤리, 재산사회 환원, 이주민, 이중문화(혼혈), 사이버 윤리, 오락, 도박, 사형제도 등.

③ 감리교인 생활수칙 제정과 실천 : 감리교인은 한마디로 신실한 사람이다. 존 웨슬리의 성화신학에 따라 모든 감리교인이 경건하고 복되게 살려는 생활운동이다. 이것을 감리교인들의 교회, 가정, 사회생활에서 정착시켜 나간다.

셋째, 모든 교회가 함께 실천한다.

① 감리교회의 모든 교육과 수련과정을 웨슬리 영성을 실천하기 위한 과정으로 일원화한다.

〈보기〉 신학교육, 정회원 교육, 워크 투 엠마우스(연수원), 개체교회 및 지방 부흥회, 사경회, 평신도 대학, 수련목 및 준회원 영성훈련 등

② 모든 감리교회가 ‘신실한 사람들,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라는 통일된 엠블럼을 사용한다. 교회가 같은 운동에 참여하는 뜻으로 동일한 현수막과 용품을 사용한다.

## 1-2. 희망 투어

**감독회장이 앞장서서 전국의 감리교회를 심방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희망투어를 실시합니다.**

첫째, 감독회장과 연회감독 등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력을 회복하고 감리교회를 통합하는 기회로 삼는다. 특히 소외자를 찾아가고 모범적인 감리교회의 위상과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둘째, 희망투어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된 감리교회의 사회복지, 지역사회 봉사, 소외자 선교 등을 서로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는 것이다. 또한 역사적인 감리교회를 방문하고 모범적인 웨슬리안을 격려하고 감리교회의 대표적인 선교사례를 발굴하고 좌절에 빠진 목회현장을 심방하여 희망을 나눈다.

셋째, 이를 통해 감리교회가 지닌 무한한 영적,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교류하여 감리교회 전체의 것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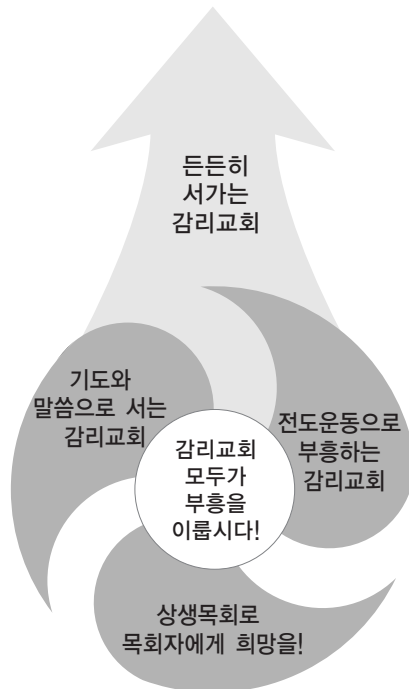


### 1-3. 영남선교대회

**호남선교대회의 전도열기를 이어 받아 영남지역에서 감리교 전도의 불을 일으킵니다.**

영남지역은 복음화율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낮은 지역이다. 2004년 호남선교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뒤이어 8월23일(목)에 부산에서 2007영남선교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전국 감리교회의 영남지역에 대한 선교적 관심을 높이고 모든 전도 역량을 영남지역에 투입하여 감리교회의 삼남지역 선교를 극대화 하려는 것이다.

## II. 든든히 서가는 감리교회: 감리교회 모두가 부흥을 이룹시다!



### 2-1.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감리교회!

**감리교회 부흥의 본질적 동력을 회복합시다.**

첫째,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교회 - 사도행전의 원리를 목회에 적용한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리라.(행 6:4)”

둘째, 웨슬리의 영성을 기초로 교회력을 따른 목회와 신앙교육을 한다.

- ① 교회력과 목회일정에 따라 영적각성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

〈보기〉 2006년 강림절, 2007년 신년예배, 주현절,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오순절, 성령강림절, 감사절, 존 웨슬리 회심주간.

- ② 교회와 속회, 개인이 영적각성 실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 공급한다.

셋째, 모든 교회가 한 말씀으로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감리교회를 이루어 간다.

- ① 감리교인을 양육하는 웨슬리 영성훈련체계가 필요하다.

〈보기〉 장기 훈련프로그램, 단기집중 훈련프로그램

- ②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양육시스템을 고안하고 실시한다.

- ③ 감리교인 필독서 운동(웨슬리 라이브러리), 새벽 Q.T 교재를 준비한다.

## 2-2. 전도운동으로 부흥하는 감리교회!

**300만 총력전도운동을 계승하여 개체교회 전도운동으로 뿌리내립니다.**

첫째, 개체교회 전도운동을 강화한다.

- ① 전도 - “1+1(One Plus One)” 배가운동 : 한 영혼이 한 영혼을, 한 가정이 한 가정을, 한 속회가 한 속회를 배가하는 운동이다.
- ② 개체 교회마다 전도대를 조직하고, 전도자를 훈련하며(웨슬리 전도학교 등), 모범 전도인을 격려한다.
- ③ 감리교 전도법(섬김의 전도)을 개발하고, 적용한다.
- ④ 감리교회 전도지를 보급하고, 지방차원의 연합 전도지를 제작하여 하나의 감리교회를 구현한다.

둘째, 현실에 맞는 감리교 소그룹 운동을 활성화한다.

- ① 웨슬리 부흥 운동의 기초인 속회전통을 회복한다.
- ② 개체교회 특성에 맞는 속회 운영을 연구하고, 지도자 훈련을 강화한다.
- ③ 모범적인 속회 모델을 발굴하고, 홍보하여 모범으로 삼는다.
- ④ 속회공과와 교육 방법 등을 개발한다.

셋째, 전략적 개척교회 설립과 차세대 교인을 육성한다.

- ① 본부, 연회, 지방회는 서로 연계하여 “미자립 교회 자립 지원 및 교회 개척기금”을 제도화 하고, 정책적인 개척후보지 마련과 개척후보자를 훈련한다.
- ② 차세대 전도를 위한 캠퍼스 선교, 대안학교, 스포츠 선교, 영어연수 등을 개발한다.

이를 위한 전문 교역자를 양성한다.

- ③ 청년 리더십의 비전을 키우고, 국제적으로 세계감리교회와 상호 교류한다.
- ④ 감리교회 어린이 전도와 양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 2-3. 상생목회로 목회자에게 희망을!

**서로 격려하고 지원하여 모두가 승리하고 감사하는 상생의 풍토를 만들어 나가려는 것입니다.**

첫째, 개체교회들이 서로 연대하여 서로 보완하고 승리하려는 것이다.

- ① 다양한 상생모델을 제시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실질적 상생네트워크를 유도한다.
- ② 도시-농촌 · 섬교회, 자립-미자립 교회, 작은교회-작은교회를 연결한다.
- ③ 뜻있는 교회를 묶어 기관목회 지원, 소외자 선교를 지원한다.
- ④ 미자립 교회 극복 M-프로젝트, 농산물 직거래 등 모범 사례를 발굴한다.

둘째, 희망목회 포럼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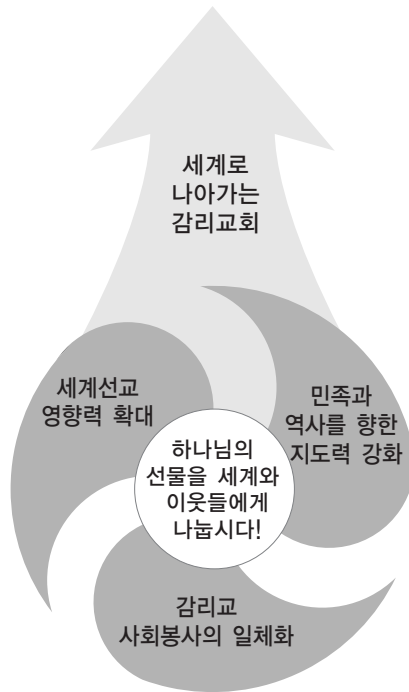
- ① 현대사회가 요구하고 목회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목회 패러다임을 연구한다.
- ② 패러다임별로 모델교회와 목회를 선정하여 홍보한다.
- ③ 패러다임별로 자발적으로 연계하여 희망목회 포럼으로 정착시켜 나간다.
- ④ 감리교회 목회 패러다임으로 특성화한다.

셋째, 희망교회 운동을 전개한다.

- ① 감리교회의 표준 모델을 정하여 일반화 시켜 나간다.
- ② 전통과 비전을 조화시킨 감리교회상을 만든다.
  - 전도하는 감리교회
  - 신실한 사람들인 감리교인
  - 사회봉사에 앞장서는 교회
  - 지역사회 리더십을 키우는 교회
  - 차세대(어린이와 청소년)에 투자하는 교회
  - 소외자들의 이웃이 되는 교회
  - 하나님의 창조질서 보전과 회복에 힘쓰는 교회
- ③ 교회와 사회 간의 신뢰를 형성하여 미래지향적인 교회로 발전시켜 나간다.
  - 건물 중심 교회에서 공동체 중심교회로
  - 교인중심교회에서 주민 친화적 교회로

- 사람중심교회에서 자연과 환경 친화적 교회로
- 교리중심교회에서 하나님 마음을 담은 교회로
- 제도중심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이 자유 하는 교회로

### Ⅲ. 세계와 세상으로 나아가는 감리교회: 하나님의 선물을 세계와 이웃들에게 나눕시다.



#### 3-1. 세계선교 영향력 확대!

**전략적으로 세계선교를 주도합니다.**

첫째, 제19차 세계감리교대회와 성과를 선교로 확대해 나간다.

① WMC의 성과와 역량을 축적한다.

〈보기〉 대회화보집, 연구물, 영상물, 기타자료

② 아시아감리교협의회(AMC)와 아시아감독교회의(FAMB)에서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며 적극 협력한다.

③ 세계감리교협의회와 132개국 세계감리교회와 선교적으로 연대하며 네트워크를 갖는다.

- ④ 세계 감리교 청년들을 초청하여 교류하며 국제적 지도력을 개발한다.

둘째, 세계선교의 발전을 모색한다.

- ① 평신도선교사, 전문선교사(의료, 기술, 컴퓨터, 스포츠, 한글교육, 사회봉사 등) 제도를 활성화 한다.
- ②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의 감리교회와 선교협정을 제도화하고, 공동선교와 현지교회와 공동사역을 개발한다.
- ③ 고려인, 조선족 등 해외 한인 공동체에 대한 선교를 활성화 한다.
- ④ 국내 외국인근로자 선교를 지원하고, 정착한 이주민 가정과 자녀들, 이중문화 가정을 위한 선교전략을 세운다.
- ⑤ 효율적인 선교사 관리 및 후원 시스템, 선교사순환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마련한다.

### 3-2. 민족과 역사를 향한 감리교회 지도력 강화!

**이 시대와 세상속에서 교회의 소명을 감당합니다.**

첫째, 지도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감리교회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 ① 장학재단의 장학기금을 확대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청년인재를 양성한다.
- ② 전통적인 교회연합운동과 지역교회협의체에서 감리교회의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③ 감리교회의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평신도 DB를 구성하고, 다양한 기독교선교단체와 시민사회운동과 사안에 따라 연대한다.
- ④ 에큐메니칼 운동을 위한 감리교회의 구체적 리더십을 선발하고, 양성한다.
- ⑤ 제19차 세계감리교대회에 청의론 합의서명에 따라 그 정신을 계승하여 국내 가톨릭교회와 루터교회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한다.

둘째, 민족복음화와 평화통일시대를 준비한다.

- ① 서부연회를 중심으로 북한교회(KFC)에 대한 교류와 협력, 신학교육지원, 직접, 간접 선교를 지속한다.
- ② 민족의 화해와 평화정착을 위해 세계감리교회와 네트워크를 갖고 협력한다.
- ③ 새터민(탈북자)의 삶을 지원하고, 신앙공동체와 생활공동체를 후원하며, 남한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협력한다.
- ④ 평화통일을 위해 타 교단과 세계교회협의회(WCC), 국내외 NGO 단체와 연대를 모색하여 감리교회의 역량을 키워간다.

### 3-3. 감리교회 사회봉사의 일체화

**감리교회 전체가 전국적인 범위와 지역에서 사회봉사운동을 벌입니다.**

첫째, 전국적으로 감리교사회봉사단을 조직한다.

- ① 이미 개체교회별로 전개되어 온 사회봉사사업을 감리교회 전체의 조직체계에 따라 하나로 묶는다.
- ② 연회와 지방회가 주체가 되는 조직이다. 연회와 지방별로 조직을 체계화한다.
- ③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모든 봉사활동을 감리교사회봉사단이란 이름으로 통합하여 실행한다.
- ④ 감리교회의 자원봉사자들을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훈련하며, 네트워크화 한다.
- ⑤ 본부는 감독회장 산하에 두고, '감리교사회봉사단'이란 이름으로 법인화하며, 연차 대회, 자원봉사자학교, 사회봉사대학 등을 운영한다.

둘째, 감리교회 사회봉사활동의 성과를 전체 감리교회로 종합한다.

- ① 감리교사회봉사단 활동은 교회와 지역에 따라 전개하되, 조직과 사업통계는 감리교회 전체의 성과로 수렴하여, 전체 감리교회의 이미지를 높인다.
- ② 평신도들의 리더십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신뢰를 주는 지도력으로 발전시킨다.
- ③ 공통적인 규약인 감리교사회봉사단 정관과 비전선언문을 작성한다.
- ④ 개체교회와 지방 사회봉사단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신뢰를 형성하며, 지역공동체를 이끌어 간다.
- ⑤ 지역봉사센터, 사회안전망시스템, 국내외 재난구호기관에 참여하며, 지역 행정기구와 연계하여 활동한다.

셋째, '희망의 집', '희망의 보금자리' 운동을 실천한다.

- ① 희망의 집- 감리교회가 벌여 온 사회봉사 시설과 복지기관에 감리교 인증을 부여하는 일이다. 이를 '희망의 집'이라 한다.
- ② 기존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네트워크화 하여 발전시킴으로써 전체 감리교회의 성과를 축적한다.
- ③ 희망의 보금자리- 지역의 가난한 이웃에게 집을 지어주고,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프로그램들을 확대하고 발전시킨다.
- ④ 이 일을 통해 감리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를 높여나간다.

## ‘희망프로젝트’ 실천을 위한 본부 · 연회 · 지방회 · 개체교회 지침

\* 이 지침은 제27회 총회 정책분과위원회(2006. 10)와 정책대회 분과모임(2006. 11), 본부 세미나(2006. 11)를 통해 정리한 것입니다.

### 〈본부〉

1. 희망프로젝트 실천위원회와 실무본부를 조직하여 추진한다(2006. 12).
2. 본부 각국과 연회의 협력 체계를 갖춘다.
3. 정책대회(2006. 11), 임원대회(2007. 5)를 개최한다.
4. 영적대각성운동 100주년을 맞아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5. 4대 우선과제(영남선교대회, 상생목회, 사회봉사단, 희망투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실행한다.
  - 선교국이 중심이 되어 영남선교대회(2007. 8.23, 부산)를 전도운동을 전개한다.
  - 교육국이 중심이 되어 목회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상생목회운동을 전개한다.
  - 사회평신도국이 중심이 되어 ‘감리교사회봉사단’을 전국적으로 조직하여 실천한다.
  - 비서실이 중심이 되어 감독회장 희망투어(“인천에서 부산까지”)를 전개한다.
6. “신실한 사람들”을 위한 3대 생활실천(목회자윤리강령, 사회규약, 감리교인생활지침)을 제정한다.
7. 감리교회 정체성 정립을 위한 웨슬리 영성을 체계화하고, 각 분야별로 신앙훈련과 교육과정을 체계화한다.
8. 존 웨슬리 회심 269주년 기념주간에 전국 감리교회가 일치된 영성, 하나의 말씀으로 공동된 프로그램을 갖도록 준비한다.
9. 감리교회의 브랜드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대외적 활동을 강화한다.
10. 본부 21개 부서가 9가지 실천 프로그램을 업무 성격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한다.
11. 제19차 세계감리교대회(WMC)의 성과와 유산을 이어 세계감리교회와 선교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12. 중앙연회 이준열사 순국100주년 기념사업(2007. 7)을 지원한다. 동부연회 구 철원 제일교회(평화통일교회) 복원 사업을 지원한다.
13. 감리교회 인재양성과 차세대 교육을 위한 장학사업과 D/B체계를 갖춘다.
14. 언론과 인터넷 매체, 각종 자료를 통해 감리교회를 내외적으로 홍보한다.
15. 감리교회 지속발전과 부흥을 위한 장기적 대안을 준비한다. 감리교회 표준화(모델화) 작업을 진행한다.

## 〈연회〉

1. 2007년도 연회를 통해 희망프로젝트를 널리 알리고 참여를 결의한다.
2. 연회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행정과 사업에서 희망프로젝트의 비전을 공유하고, 실천한다.
3. 목회자윤리강령이 실효화 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에 적용시킨다.
4. 연회 차원의 집회 및 준회원영성훈련, 목회세미나 등 교육프로그램마다 웨슬리 영성회복을 집중 훈련한다.
5. 영남선교대회 지원과 참여 체계를 갖춘다. 영남지역 12개 지방과 연계하여 전도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 결연활동을 한다.
6. 연회 내 미자립교회의 자립화를 위한 대책을 지방회와 함께 마련한다.
7. 연회 단위의 전도학교를 실시하여 전도자를 양성한다. 모범 전도자를 발굴하여 표창한다.
8. 목회 유형과 패러다임에 따라 상생목회를 네트워크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9. 연회 단위의 감리교사회봉사단을 조직하여 운영한다.
10. 희망투어를 공동기획하고 연회별로 특화된 프로그램과 행사, 인적 자원을 지원한다.

## 〈지방회〉

1. 2007년 지방회에서 희망프로젝트를 널리 알리고 실시하기로 결의한다.
2. 희망의 제도화를 위해 장정에 따라 정직한 부담금 납부, 선거풍토 개선, 감리사의 구역회 주관을 준수한다.
3. 등급사경회를 영적대각성운동 100주년의 취지에 맞게 실시한다.
4. 각종 평신도교육프로그램(장로고시, 임원교육, 속장세미나, 교사훈련, 평신도대학 등)을 통해 웨슬리영성교육을 강화한다.
5. 존 웨슬리회심 269주년 기념주간에 전국 지방이 웨슬리영성회복을 위한 공통된 행사를 개최한다.
6. 선교부는 영남선교대회를 지원하고 참여한다.
7. 교육부는 상생목회운동을 위한 선발과 연결, 참여를 조직화한다.
8. 사회평신도부는 지방 사회봉사단을 조직하여 운영한다. 각 지방에 맞는 정관과 비전선언문을



작성할 수 있다.

9. 해당 지방에서는 감리교회 봉사센터로 인증받은 ‘희망의 집’, 사랑의 집짓기 ‘희망 보금자리’ 운동을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도서관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10. 지역 교회협의체, 지역 사회봉사기관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평신도의 리더쉽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에서 지도적 역할 할 수 있도록 돕는다.
11. 지방 별로 전도운동을 실시한다. 전도학교를 실시하여 전도대원을 양성한다. 지방 공동전도지를 제작하여 지역사회에 감리교회를 알리고, 미자립교회 전도를 지원한다.
12. 지방 별로 자원봉사학교를 실시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한다.
13. 지방 차원에서 역사적인 감리교회, 모범이 되는 개체교회 프로그램, 자랑스런 웨슬리안을 발굴하여, 본부에 추천한다.
14. 지역의 새터민, 외국인이주민, 쪽방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
15. 지방 예산의 합리적 사용, 목회자 간 학연갈등 극복을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

### 〈개체교회〉

1. 2007년 목회계획에 희망프로젝트를 반영하여 참여한다.
2. 전국 교회가 신년 첫 주부터 “신실한 사람들,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란 일치된 홍보현수막을 게시한다.
3. 감리교인이란 정체성을 강화하고, 웨슬리 영성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모든 감리교회가 공통된 예배와 영성, 교회력, 상징물 사용으로 감리교회다운 일치된 분위기를 갖도록 힘쓴다.
4. 개체교회 부흥을 위해 전도운동을 강화한다. 교인, 가정, 속회 배가운동인 ‘1+1’ 운동을 전개한다.
5. 감리교인으로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하며, 이웃사랑과 사회봉사에 앞장 서 전도환경을 최적화한다.
6. 감리교인생활지침을 적극 홍보하여 교인들이 감리교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한다.
7. 영남선교대회의 필요성을 알리고, 교인들이 전도운동에 참여하게 한다.
8. 본부의 안내에 따라 감리교인 필독서 운동(웨슬리안 라이브러리)에 참여한다.

## ‘희망프로젝트’ 본부 실천방안

본부 실천방안은 정책대회(2006.11.23~24)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 본부

#### 1. 희망 프로젝트 추진 배경

기독교대한 감리회는 신경하 감독회장의 새로운 지도력 하에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가 될 것을 선언하였다. 이것은 오늘 감리교회가 처한 영적, 선교적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영적인 각성과 감리교 본연의 정체성 회복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전도와 봉사, 선교에 전심전력함으로써 신의를 회복하고 건강한 감리교회를 이루어 가자는 것이다.

희망 프로젝트는 감독회장의 비전과 정책 공약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2006년 10월 말 입법의회에서 장단기 발전위원회가 구성되고, 지난 1년여 동안의 작업과 토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이것은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의 3대 정책방향, 곧 나날이 새로워지는 감리교회, 든든히 서가는 감리교회, 세계로 나아가는 감리교회의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 사업들을 담고 있다. 이것은 10대 정책 과제와 함께 제시되었는데, 후자가 주로 본부 차원에서 구체화되었다면, 희망 프로젝트는 본부와 현장목회자를 아우르면서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된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연회총무들, 평신도 단체장들과도 협의 과정을 거쳤고, 총회실행위원회와 27회 총회를 통하여 결의되고 시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희망 프로젝트는 감독회장의 후반부 2년 임기에 맞추어 준비된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들도 있지만 (이것은 선교백서를 통해 장기적 비전과 정책이 제시될 것이다), 주로 단기성 시행과제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 따라서, 희망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2007년도 한 해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희망 프로젝트는 어느 한 부서의 일이 아니라, 본부 전체가 감독회장을 중심으로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고 각 연회와 적극 협력하면서 함께 추진해 가야 할 일이다. 물론, 선교국에서 주무를 하겠지만, 이것은 일을 조직화하고 조정하며 통일화시키는 역할을 주로 담당할 것이다. 본부 각국과 연회 총무들이 공동으로 추진본부장이 되어 함께 매진해 나갈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의 미래가 밝게 될 것이다.

#### 2. 주요 내용과 실천 방안

희망 프로젝트는 이러한 영적 각성과 정체성 회복 운동을 구체화 시켜나가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중점 추진될 것이다.

먼저, 영적 각성운동을 전개하여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영적 각성운동은 감리교회의 웨슬리적 영성과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웨슬리의 뜨거운 가슴을 회복하는 것이요, 뜨거운 가슴으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성화되는 삶을 살자는 것이다. 이것은 말씀과 기도, 예배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사랑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목표는 신실한 감리교인(faithful members, FM)을 이루어 가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도와 선교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영적각성 운동은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부터 솔선수범하여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신실한 감리교인상을 회복하는 기본 위에 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영적 각성 집회를 지역별, 연회별로 실시할 것이며 이를 전도와 선교의 열기로 승화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영적 각성 실천의 차원에서 '희망투어'를 통한 나눔의 실천으로 감리교회의 선교적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데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열정과 역량을 영남선교대회를 중심으로 최고조에 이르게 할 것이다. 영남선교대회를 앞두고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전도 훈련을 강화하고 실제적인 전도를 통한 감리교 홍보를 실시해 대회를 준비하여, 영남지역에 감리교회의 선교적 이미지가 변화되게 할 것이다.

둘째로, 교회부흥운동과 희망목회운동으로 감리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다. 교회부흥은 전도 운동 중심이다. 말을 타고 복음 전하던 웨슬리의 모습은 우리 감리교회의 정체성이다. 전도의 열정을 다시 불붙이고 '원 플러스 원' 배가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웨슬리 전도학교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전도 훈련뿐만 아니라 전도운동과 연결시키고자 한다. 도시와 농촌교회 연결,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연결시켜 상생목회를 이루어가는 일을 추진하고, 중형교회 개척 설립 운동으로써 본부와 각 연회에서 한 교회씩 설립 운동을 추진하여 교회부흥과 성장의 돌파구를 찾고자 한다. 희망목회운동은 미자립교회 대책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이를 위해 미 자립교회 목회자 재교육과 M-Project를 추진하며, 또한 희망목회 모델 교회를 찾고 홍보하여, 좌절과 패배의식에 빠진 목회현장에 희망을 주려고 한다. 특히 우리 교회의 희망인 어린이와 청소년 부흥을 위해서도 최우선적인 정책과 역량을 집중하여 미래가 있는 건강한 감리교회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리교회가 세계와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선교전략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WMC의 성공적 개척을 통해 높아진 한국 감리교회의 위상에 부응하고 21세기 세계선교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선교 구조와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확대하며, 세계교회들과 적극 교류하고 협력한다. 선교사 1000명 시대를 바라보며 선교사 훈련에서 파송,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세계선교부서의 확대와 독립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세계선교시대에 맞는 국제적 감각을 지닌 지도력 개발에 힘쓴다. 감리교회의 희망은 청소년들과 차세대 지도자들을 키우는 일이다. 이를 위해 장학재단을 확충하고 기금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에큐메니칼 지도력 양성을 위해 신학교 커리큘럼 수립,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과 회의 참여를 확대한다.

한편, 세상 속에서 선교와 전도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사회봉사를 하나로 묶고, 자원봉사운동을 전국적이며 통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감리교회의 이미지 선교를 강화하고 전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봉사단 조직, 희망의 집, 희망의 쌀 운동을 전개한다.

### 3. 희망 프로젝트 추진 일정 및 계획

1) 감리회는 '희망 프로젝트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부에 추진운동 본부를 두어 주무는 선교국

- 에서 담당하되 본부 각 국과 비서실이 유기적으로 함께 일하는 구조를 수립한다.
- 2) 각 연회, 지방별 연계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특히 정책대회 이후 연회별 정책세미나를 실시한다.
  - 3) 전국의 감리교회가 2007년 1월 초를 기해 일제히 “신실한 사람들,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차량에도 걸어서, 희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출발하도록 한다. 본부에서는 이러한 현수막 샘플을 제공한다.
  - 4) 2007년~2008년간 우선 실천할 내용을 연대별로 수립한다. 본부 각 국은 정책 자료집 내용에 희망 프로젝트 중심의 계획을 창조적으로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과거의 것을 답습하는 것은 피한다.
  - 5) 희망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별 기도회를 실시하고, 2008년 5월에 전국 임원대회(성회)를 개최한다.
  - 6) 희망 프로젝트 장기실천과제를 중심으로 감리교 선교백서를 발간한다.(장단기 발전위원회)
  - 7) 희망 프로젝트 점검과 평가를 위한 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월 1, 2회)으로 점검하고, 임원회를 희망 프로젝트 추진과 연결하여 진행하며, 각 국 정책협의회나 국 위원회에서도 이를 점검하고 적극 추진한다.

## 선교국

총무 이원재 목사

### 서언 : 희망 프로젝트 추진 본부의 구성과 선교국의 역할

‘희망 프로젝트’는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를 내세운 신경하 감독회장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임기 후반부에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이는 오늘의 감리교회가 처한 영적, 선교적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영적 대각성 운동과 감리교회 정체성 회복을 통해 전도와 봉사, 세계 선교에 전심전력함으로써, 대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감리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한 것이다.

희망 프로젝트는 지난 1년간의 장단기 발전위원회의 열정적 준비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희망 프로젝트는 과거의 그 어떤 교단 정책 프로젝트와 비교해 보아도, 종합적이고 균형이 잡힌, 그래서 진정 감리교회다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열매 맺게 하느냐는 것이다. 이는 어느 한 부서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며, 본부 각 국과 11개 연회를 포함한 감리교회 전체의 합심 협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수 4:6)”는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지난 제27회 총회를 통해, 희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범감리교회적 기구를 본부에 설치하게 되었다. 이에 본부에 ‘희망프로젝트 추진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며, 그 산하에 추진 본부를 두어 실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 위원회와 실무본부는 총회실행위의 의결을 거쳐 가능한 연초부터 가동되게 준비

할 예정이다. 실무본부의 일과 관련하여 선교국은 주무를 담당하겠지만, 직접 추진해야 할 정책 내용들 외에는, 주로 일을 조직화하고 조정하며 통일시키는 역할에 집중할 것이다. 프로젝트의 내용 상 감리회 본부의 각 국과 비서실, 그리고 연회 본부가 공동추진본부가 되어 상호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협력할 때만 효과적인 결실을 기대할 수 있으며, 감리교회 5,800교회 150만 성도 모두가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 선교국 중점 추진 내용과 방안

희망 프로젝트의 세 가지 중점 목표, 즉, ‘나날이 새로워지는 감리교회’, ‘든든히 서가는 감리교회’, ‘세계와 세상으로 나아가는 감리교회’에 따라 각각 아래와 같은 구체적 내용들을 추진하고자 한다.

### I. 나날이 새로워지는 감리교회

#### 1. 영적 대각성 운동 전개

##### 1) 취지와 목적

2007년은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03년 하디 선교사로부터 이어진 영적 각성운동을 기념하고, 오늘의 선교적 위기상황에서 새롭게 각성과 부흥 운동을 일으켜 세계와 사회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감리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beyond 1907>을 앞세워 영적 각성운동을 전개한다.

##### 2) 주요 추진 내용

- ① 2007년 5월 초에 전국 임원 초청 영적각성 성회를 개최하고, 이어 웨슬리 회심주일 집회를 기회로 이를 지방 차원으로 확대한다.
- ② 임원대회 이후 영남선교대회가 정점이 되도록 전국적으로 연회별로 영적 각성 집회를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중심으로 실시하고, 말씀과 기도운동을 전개한다.
- ③ 영적 각성 실천의 차원에서 ‘희망 투어’를 실시하여 어려운 교회와 이웃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고 감리교회의 선교적 이미지를 고양시킨다.

#### 2. 영남선교대회 개최

##### 1) 취지와 목적

영남지역은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고 감리교 선교의 취약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선교대회를 실시하여 감리교회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감리교 부흥의 전기를 삼고자 한다.

##### 2) 주요 추진 내용

- ① 영남선교대회를 2007년 8월에 실시하되, 거리전도와 봉사활동, 전국 감리교회가 모인 영적 각성 및 선교대회, 현지 주민들과 함께하는 전도 집회를 기획한다.
- ② 연회 이후 영남선교대회 전까지 전국적으로 전도 집회와 희망투어를 실시하고, 청소년 희망 프로그램 마련하여 영남선교대회에 절정에 이르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영남선교대회 전에 미리 영남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전도 훈련을 실시하고 사전 전도를 통한 지역 내 감리교 홍보에 힘쓴다.

## II. 든든히 서가는 감리교회

### 1. 범 감리교회적 전도운동 전개

#### 1) 취지와 목적

300만 총력전도운동을 계승하고 개체교회 전도운동을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감리교회의 부흥을 이룩하고 전도하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고자 함이다.

#### 2) 주요 추진 내용

- ① “1+1(원 플러스 원)” 배가운동의 전개: 한 영혼이 한 영혼을, 한 가정이 한 가정을, 한 속회가 한 속회를 배가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이 운동의 표어는 “할 수 있다 한명 전도, 하면 된다 배가운동”으로 통일한다.
- ② 개체 교회마다 전도대를 조직하고, 전도자를 훈련하며 (웨슬리 전도학교와 연계), 모범 전도인을 적극 표창한다.
- ③ 감리교회 특징적인 전도법을 개발하고 전도지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 ④ 웨슬리 전도학교를 강화하고 지방, 개체 교회 단위의 전도훈련을 활성화한다.

### 2. 미자립교회 대책 수립과 전략적 개척교회 설립 추진

#### 1) 취지 및 목적

든든히 서가는 감리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자립교회에 문제에 대한 대책과 교회개척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교회부흥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주요 추진 내용

- ① ‘미자립교회 대책위원회’ 활동을 본부, 연회, 지방 차원에서 활성화한다.
- ② ‘미자립교회 자립 지원 및 교회개척기금’을 본부와 연회가 연합하여 조성하고, 본부와 연회에서 향후 2년 내에 한 교회씩 전략적 중형교회를 개척 설립하도록 추진한다.
- ③ M-project(실험교회 운영을 통한 미자립교회 극복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 ④ 전국적으로 전략적인 교회개척이 필요한 지역을 연구 조사하여 자료화하고, 교계지에 적극 홍보하여 구체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 3. 상생과 희망 목회 운동 전개

#### 1) 취지 및 목적

문화일보에서 추진하는 ‘1사1촌 운동’에 착안하여, 도시와 농촌 교회, 작은 교회와 큰 교회를 서로 연결하고, 희망을 주는 목회 모델을 발견, 홍보함으로써 목회현장에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 2) 주요 추진 내용

- ① 도시 - 농어촌, 자립 - 미자립 교회 간의 자매결연 운동을 전개한다.
- ② 희망 목회 포럼을 실시하고, 다양한 목회 패러다임을 개발하여 작은 교회나 특수 목회자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운동을 전개한다.
- ③ 다양한 영역에서 희망을 주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찾아 소개하고 격려하는 희망교회 운동을 전개

한다.

### III. 세계와 세상으로 나아가는 감리교회

#### 1. 세계선교 협력의 확대와 종합적 선교사 관리 시스템 마련

##### 1) 취지와 목적

제19차 세계감리교대회이 성공적 개최를 통해 높아진 선교적 위상에 부응하고 21세기 세계선교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세계교회들과 협력하며 세계선교 지도력을 개발해나가는 한편, 내부적으로 선교후원과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여 나가기 위함이다.

##### 2) 주요 추진 내용

- ① 세계교회들과의 선교협력과 협약을 확대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수립한다. UMC 뿐만 아니라, 영국과 유럽, 아시아 감리교회들과의 선교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중국교회와의 교류확대를 통해 미래를 준비한다.
- ② 선교사 관리와 후원 시스템을 통일화 시켜 나가며, 나아가 점증하는 선교사와 세계선교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세계선교부서의 확장과 독립을 추진한다.
- ③ 세계선교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과 지도력 개발에 최선을 다한다. 개체교회의 선교참여를 활성화하고 평신도 전문인, 단기 선교사 제도를 강화한다.

#### 2. 민족과 세계를 향한 에큐메니칼 지도력 확대

##### 1) 취지 및 목적

민족의 평화통일과 세계교회의 일치협력을 위한 활동은 감리교회의 귀한 전통이며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분야이다. 4년 전임 감독제를 가지고 있는 감리교회의 위상이 에큐메니칼 현장에서 더욱 영향력 있게 발휘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 2) 주요 추진 내용

- ① 민족의 화해와 평화정착을 위해 세계 교회 및 세계 감리교회와 네트워크를 갖고 협력한다.
- ②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하며 북한에 교회 재건과 설립을 위한 기금 운동을 전개한다.
- ③ 에큐메니칼 운동을 위한 차세대 지도력을 선발하고 양성한다.
- ④ 제19차 세계감리교대회이 청의론 합의 정신을 계승하여 국내에서도 교회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1. 영적 대각성과 영성회복을 위한 교육정책 실현

### 1) 취지와 목적

감리교회의 영적 각성 붐 조성과 다시 교회를 부흥케 할 능력(특히 교회학교)을 배양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희망 프로젝트의 근본 취지는 1907년 대 부흥운동이 현재화되어 전 감리교인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되고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에 교육국은 교육 정책의 기본틀을 영성 회복에 두고 각종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한다.

### 2) 실천

- ① 새 교육 과정 개발 시 영적 대각성과 영성 회복 역점
- ② 교육 주제와 정책 수립 시 영적 대각성과 영성 회복 강조
- ③ 기존 발행 교재 개정판 편집 시 영성 회복과 훈련 강조
- ④ 웨슬리 영성에 대한 자료 개발
- ⑤ 교사와 청년을 위한 연회별 ‘영적 대각성 집회’ 개최
- ⑥ 영남 지역에 초점을 맞춘 각 지방별 교사·청년 영적 각성 집회 개최

## 2. 차세대 비전 세우기(청소년·청년) 위한 정책 개발 및 훈련

### 1) 취지와 목적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의 미래는 다름아닌 ‘차세대 육성’에 달려 있다. 저출산에 따른 청소년과 어린이 인원 감소의 현실에서 감리교회는 과감히 차세대에 투자하여 미래 교인들을 육성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에 교육국은 차세대 비전 세우기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 2) 실천

- ① 아동부~청년부 교재 개발에 최역점
- ② 우리 감리교회 교재 사용하기 운동 전개
- ③ 청년 교회 활성화 및 청년 교육 지원 강화
- ④ 청년 목회자 네트워크 구성 및 청년 목회 개발 지원
- ⑤ 관심 분야(문화와 스포츠)를 통한 선교 전략 실행
- ⑥ 학원 선교의 핵심인 캠퍼스 선교 활성화 방안 제시
- ⑦ 지역 대안학교를 통한 감리교 이미지 고양 방안 수립

## 3. 국제적 리더 양성을 위한 청소년·청년교육 강화

### 1) 취지와 목적

성공적인 제19차 세계감리교대회 성과와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연결, 차세대들의 국제적 감각과 능력을 키워 미래의 에큐메니칼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며 세계 선교의 핵심에 설 청소년·청년들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세계로 나아가는 감리교회의 초석을 든든히 세운다.

## 2) 실천

- ① 영어 예배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보급
- ② 한미 교환 학생 홈스테이 프로그램 추진
- ③ 단기 선교 체험 및 해외 교회 탐방
- ④ 언어 실력을 갖춘 에큐메니칼 리더 발굴과 훈련 실시
- ⑤ 각종 국제대회 청소년·청년 파견
- ⑥ 탁월한 유망 학생에 대한 최대의 장학 지원

## 4. 감리회 정체성 강화를 위한 속회 정책 쇄신

### 1) 취지와 목적

든든히 서 가는 감리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는 웨슬리 부흥 운동의 기초인 속회 운동을 활성화하고 다양화된 속회에 대한 운영 시스템과 교육 자료들을 개발하여 이를 개체 교회들이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 교육국은 이를 위해 감리회 정체성을 강화한 속회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가고자 한다.

## 2) 실천

- ① 속회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조직 및 개혁안 마련
- ② 속회 운영 방식의 개혁; 열린 모임으로 신앙 나눔 강화
- ③ 속회공과 내용의 성서적 확충
- ④ 속회 지도자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1일 수양회 도입 등)
- ⑤ 모범 속회 발굴 및 소개 세미나

## 5. 노령화 시대를 대비한 어르신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1) 취지와 목적

든든히 서 가는 감리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가는 이미지로 사회에 각인되어야 한다. 급격하게 변하는 노령화 시대에 발맞추어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어르신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신뢰받는 감리교 이미지를 브랜드화 한다.

## 2) 실천

- ① 기존 2차의 어르신 성경학교 교재와 프로그램 확대 개편
- ② 노인 목회 혹은 프로그램 전문가 양성
- ③ 개체 교회에 어르신 프로그램 제시

## 6. 희망 목회자 양성을 위한 성서 교육 및 영성 훈련 강화

### 1) 취지와 목적

희망의 감리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토대는 목회자들의 영적 능력 회복과 전문 목회자로서의 실력을

갖추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국은 목회자 양성 기관인 각 신학대학원에서 성서 교육과 영성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방안을 제시하고, 기존 목회자들에게는 정회원 연수교육 등을 통해 말씀과 기도의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사도의 모습을 갖추게 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실천

- ① 개통학교 교수 및 사문직원 지원 자격 강화
- ② 각 신학대학원 성경 교육 강화 방안 제시
- ③ 각 신학대학, 대학원, 신학원의 통일된 웨슬리 영성 훈련 수립 및 시행
- ④ 젊은 목회자를 위한 영성 및 목회 기능 개발과 집중 양성
- ⑤ 성경과 영적 통찰을 위한 특강 실시(정회원 교육 시)

## 7. 감리교인 영성 회복과 경건 생활을 위한, 교회력에 따른 교재 개발

### 1) 취지와 목적

나날이 새로워지는 감리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감리교인들의 영성과 경건 생활이 가장 근본이 되는 뿌리가 되어야 한다. 개인의 영성 회복과 경건 생활을 도와 신실한 감리교인으로서 지역 사회에 서게 한다.

### 2) 실천

- ① 새신자 양육 성장 훈련 과정 마련
- ② 임원 자격의 강화 및 훈련 과정 수립(영성 생활 기준안 마련)
- ③ 감리교 필독서 작성 및 보급 운동 전개
- ④ 웨슬리 회심 기념 특별 새벽기도회 가이드 북 발간
- ⑤ 개인 영적 생활 점검표 작성 및 보급
- ⑥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를 묵상하는 묵상집 발간(강림절, 사순절)
- ⑦ 연수원 영성 프로그램 강화

## 8. 대 사회적 이미지 쇄신을 위한 여성·평화 교육 강화

### 1) 취지와 목적

감리교회가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민족 화해와 평화 정착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감리교 교인의 60%에 이르는 여성들의 지도력 개발이 시급하며 갈등과 폭력이 넘치는 사회에서 선도적으로 생명과 화해의 문화를 일구어 가는 평화의 리더들이 절실하다. 교육국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성 일꾼과 화해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자 한다.

### 2) 실천

- ① 교회 여성들의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 ② 기독교 평화 교사교육 프로그램
- ③ 갈등 해소 대화법 등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9. 영남선교대회와 병행하는 젊은이 선교 축제 및 희망 투어

### 1) 취지와 목적

감독회장의 희망 투어에서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영남 지역 젊은이 선교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 2) 실천

- ① 희망 투어의 일환으로 청년 교사를 위한 1일 집회 개최
- ② 선교대회 전야제로 전국 청년 학생 영적 대축제 개최
- ③ 감리교 젊은이 선교 결집을 위한 자전거 희망 투어 실시
- ④ 청년연합회 조직에 박차를 가하여 청년 신앙 결속력 강화

## 사회평신도국

총무 엄마리 장로

## 1. 감리교인 생활수칙을 제정하고 실천함으로 영성과 경건생활을 회복한다.

### 1) 제정 취지

사회평신도국은 2007년 주제를 “**영적 각성으로 거듭나는 평신도**”로 정하고 평신도들의 영적 각성과 성장으로 평신도들이 감리교회의 희망으로 설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이를 위해 <감리교 희망프로젝트>의 제1사업인 ‘영적각성 실천운동’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 중 하나로, 감리교인들이 생활 속에서 신실하고 바른 복음적인 삶을 실천함으로써 영성을 회복하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감리교인 생활수칙**>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동 방안을 마련하여 감리교인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자 한다.

### 2) 홍보 및 보급 방안

- ① 감리교인 생활수칙 실천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 ② 주제를 상징화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평신도단체 및 개체 교회를 통해 보급한다.
- ③ 평신도 월례회공과 등 사회평신도국에서 발행하는 자료에 감리교인 생활수칙이나 요약된 구체적인 생활지침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보급한다.
- ④ 감리교 본부에서 발행하는 출판물에 감리교인 생활수칙 실천을 홍보하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보급한다.
- ⑤ 온라인(감리교 홈페이지)과 오프라인(기독교타임즈)을 이용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한다.
- ⑥ 본부, 연회, 지방회와 개교회 주관의 행사 때마다 이 운동의 올바른 취지를 홍보하고 실천을 다짐하도록 한다.
- ⑦ 감리교회의 모든 평신도단체(남·여·청장년·장로회·여장로회·원로장로회)들이 앞장서서 선수범할 수 있도록 수련회나 세미나 등 각종 행사시에 생활수칙 실천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

간을 갖고 실천을 다짐하도록 한다.

- ⑧ 지방사회평신도부 총무를 통해 이 운동을 지방 사회평신도부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⑨ 평신도주일 행사시 생활수칙 실천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갖고 실천을 다짐하도록 권고하고, 자료집에 관련 자료와 실천 사례 등을 게재한다.
- ⑩ 모든 감리교회와 교인들을 대상으로 생활수기와 아이디어 등의 공모 행사를 실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관심을 갖게 하고 널리 확산되도록 한다.

### 3) 확인 및 점검 방안

- ① 감리교인 생활수칙이 확산되고 생활화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감리교회 본부 차원의 전담 운영팀을 구성한다.
- ② 평신도단체장 협의회를 통해 단체별 실천 상황을 점검하고 연합하여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의논하여 시행한다.
- ③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의 평신도주일 성수 결과 보고 시에 생활수칙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들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기독교타임즈와 홈페이지 등에 모범 사례로 홍보하여 개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2. 감리교 사회봉사단을 조직하고 전국 사회봉사단대회를 개최한다.

### 1) 개요

이미 개체교회별로 전개되어 온 사회봉사사업을 감리교회 전체로 네트워크화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훈련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연회와 지방별로 사회봉사단을 구성하도록 독려하며, 사회평신도국에서는 조직에 필요한 사회봉사단 규칙을 제정하고 제반 사항을 돕는 한편, 전국 사회봉사단 협의회를 운영하고 전국 사회봉사단 대회를 개최한다.

### 2) 사회봉사단 규칙 제정

사회평신도국은 ‘감리교 사회봉사단 규칙’ 초안을 작성해 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 10월 입법 총회에 상정한다.

### 3) 시행방법

- ① 사회평신도국은 감리교 사회봉사단 규칙을 입법총회에 상정하며, 연회에서는 사회봉사단 규칙에 근거하여 연회별 사회봉사단을 조직한다. 연회 사회봉사단이 조직되면 지방에서도 사회봉사단을 조직하도록 한다.
- ② 연회는 연 1회 이상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지방에서는 연회 자원봉사자 교육에 참여한다. 교육훈련 이수자는 회원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봉사한다.
- ③ 연회는 청장년선교회의 기술자원봉사단을 단체회원으로 받아 연회 내 저소득장애인, 독거노인들의 주택을 수리해 주는 기술봉사활동을 지원한다.
- ④ 연회는 청소년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자원봉사꿈나무 영성훈련’을 연회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개최하고 수료한 학생을 청소년 사회봉사단 회원으로 한다.

- ⑤ 연회 사회봉사단 조직과 운영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연회 및 지방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 4) 전국 사회봉사단협의회 및 전국 사회봉사단대회

연회별로 사회봉사단이 조직되면 사회평신도국에서는 전국 사회봉사단협의회를 조직하여 감리교 자원봉사의 발전방향과 협력 사안을 논의하고, 전국 사회봉사단대회를 개최한다.

## 사무국

총무 김영동 목사

사무국은 감리회 본부의 행정과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 정책국이 총회의 정책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선교의 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리회관 및 본부 기본재산을 관리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있다.

또한 희망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각 부서는 행정제도의 개선과 민원업무처리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무국의 업무는 5,700교회와 8,000여 명의 교역자와 150만 성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기에, 각 종 민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친절하고 섬기는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면 민원인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것이며, 낡은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감리교회의 희망이 될 것이다. 특히 은급사업은 지속적인 개선안을 통해 이미 은퇴교역자들의 희망이 되었고, 장학사업과 복지업무는 미래 감리교회의 희망의 사업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사무국 각 부서의 희망을 향한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 1. 행정제도 개선을 이루는 행정부

감리회 본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면서 동시에 총회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정의 중심이기에, 본부 행정부 업무의 두 주류는 본부 임직원들의 신앙과 영성생활에 대한 지원과 본부 행정과 임직원들의 인사, 복지행정에 대한 관리업무이다. 본부 임직원들의 신앙과 영성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도회와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본부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행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뿐 아니라, 전체 감리교회 내의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행정총회가 개최되고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분과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제8분과인 행정 및 인사제도연구위원회를 통해 본부 조직에 대한 연구와 행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어 정책에 반영될 것이다.

### 2. 수익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회관관리부

감리회의 임대사업장으로 감리회관, 정우빌딩 11층, 회현상가가 있다. 현재 임대면적 4,828평이

100% 임대된 상태이다. 전세부분을 월세로 전환하여 임대료수익을 증대해 갈 계획이다.

임대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6. 10. 31. 현재/단위:원)

사업장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수입	월 관리비 수입	월 주차비 수입
감리회관	7,912,257,000 (8,576,737,000)	230,883,000 (299,343,000)	106,794,640 (134,674,640)	약 12,500,000
정우빌딩	204,528,000	20,265,800		
회현상가	37,000,000	2,880,000		
합 계	8,153,785,000 (8,818,265,000)	254,028,800 (325,488,800)	106,794,640 (134,674,640)	

· 위 ( )안의 금액은 18층 일부(12월 입주), 19층 전부('07년 1월)의 임차인이 입주시부터 적용됨.

· 임대보증금 환급금 적립액 : 4,624,000,000원(58.4%)

### 3. 은퇴교역자들의 희망인 은급부

현재 은급사업은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행과 금융시장의 상황변화는 은급사업의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사회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퇴직 연금제도'의 성격을 병합한 은급제도의 보완을 연구 중이다. 교회와 교역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의 창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은급사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 1) 은급부담금 현황

(2006. 10. 31. 현재/단위:원)

부담금 수입	월 평균 지급액	연간지급액(예상)
2006년도 교회부담금 책정액 : 8,303,563,000 2004년도 교역자(4,370명) 부담금 : 약 7,800,000,000원	637,098,250 (지급대상인원 : 1,010명)	7,873,520,000

#### 2) 임대현황

(2006. 10. 31. 현재/단위:원)

구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수입	월 관리비 수입
감리회관 12층	460,200,000	47,200,000	20,060,000
하나로빌딩 8층	167,745,600	16,774,560	
합 계	627,945,600	63,974,560	20,060,000

#### 3) 은급금 예금잔고현황 : 16,876,122,316원

#### 4. 개체교회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산관리부

감리회의 재산편입제도는 교단을 하나로 묶는 벨트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교회재산의 사유화방지, 교회재산으로 인한 분열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신설된 종합부동산세의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 중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재산에 대하여 편입 이전보다 10배 이상의 부당한 세금을 물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회가 건축을 할 때 고액의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어 교회건축이 위협을 받고 있고 부목사, 전도사 주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7회 총회 5분과 재산관리에 대한 연구위원회의에서 교회재산세금문제 등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 바, 앞으로 관련법령의 개정청원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유지재단에 편입된 재산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6. 10. 31. 현재/단위㎡)

토지면적	건물면적	합 계	편입교회수
13,675,817 (4,136,935평)	2,544,527 (769,719평)	16,220,344 (4,906,654평)	3,214

#### 5. 미래 감리교회의 희망인 복지법인과 장학사업

교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게 요구된다.

원로원시설이 부족하여 입주대기자가 증가하고 있어 원로원을 증설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1) 사회복지시설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6. 10. 31. 현재)

시설명	복지시설	원로원	분사무소
곳	64	38 (원로목사 53명)	8

2) 장학금지급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6. 10. 31. 현재/단위:원)

수령자	지급액
79명 (대학원생, 대학생, 고등학생, 신학생, 계통대학생, 계통고등학생)	119,500,000(미화 30,000불)

#### 6. 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해 희망의 감리교회를

교회 민원의 친절,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화, 전송, 이메일, 우편을 이용한 처리를 확대해 갈 것이다.

재산관련 법률, 세무, 등기문제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무자들을 전문가로 양성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할 것이다.

## 〈희망 프로젝트〉를 널리 알리고 적극 실천할 홍보출판국

영성과 선교의 시대인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감리교회는 한국 교회의 희망이고 세계 교회의 희망이다. 왜냐하면 한국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웨슬리의 전통과 신앙 유산이 가장 성서적이고 역사적으로 검증되었으며 아직은 유기적이고 협동적인 시스템과 네트워크가 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다. 감독교장을 통하여 접화된 ‘희망 프로젝트’인 “나날이 새로워지는 감리교회, 든든히 서 가는 감리교회, 세계와 세상으로 나가는 감리교회”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한 알의 썩어진 밀알처럼 서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서 스타가 아니라 어시스트의 책임을 다할 것을 홍보출판국 직원 일동은 다짐하는 바다.

특별히 오후 5시에 포도원의 일꾼으로 쓰임 받은 사람으로서 조금한 마음이나 성취욕을 버리고 기본에 충실하면서 위로는 감독교장과 홍보출판국 위원장(김기택 감독)의 지도를 받으면서 5,700 교회 8,700 목회자와 150만 성도들의 청지기 요셉의 삶으로 섬길 것을 다짐하면서 지역 교회의 부흥과 선교에 피부에 닿는 구체적인 일을 함으로 희망을 보여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끊임없는 조언과 지도편달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더 많은 희망의 메시지를 교훈삼아 짧은 시간에 장단기 〈희망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 것을 약속하면서 실무자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중심으로 홍보출판국의 사역을 보고한다.

### 1. 홍보출판국의 당면과제

기본을 튼튼히 세워야 한다. 홍보출판국이 하는 사업 중 중요한 일은 출판물을 기획하고 출판하여 영업함으로 세금도 내고 직원 월급도 주고 이익을 남기어 ‘희망 프로젝트’를 위하여 선교비를 후원하는 일까지 담당하는 운영구조다. 그러나 신뢰가 손상되고 정기간행물(「기독교세계」, 「강단과 목회」, 「신앙과 교육」)에 천문학적인 미수금이 쌓이고 단행본과 달력에서도 미수금(2억)이 쌓이므로 인쇄업체에 인쇄물을 맡기고 결재를 빨리 하지 못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업체에 일을 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받을 것은 많으나 쓸 돈이 없는 상황이 홍보출판국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확신한다. 감리교회 지도자들의 정직성과 협동정신을 믿기에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1,000원 한 장 빈틈없이 투명하게 관리함을 증명함으로 기록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홍보출판국, 5,700 교회, 150만 성도가 믿고 협력하고 이용하는 홍보출판국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다짐하고 거의 날마다 청계천 맑은 물 따라 걷고 뛰면서 다짐하는 바이다.

### 2. 〈희망 프로젝트〉를 위한 영업부 실천 방안 보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구매의 편의성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상품을 생산한



다 할지라도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고객이 원할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는 유통망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 1) 서점 : 가장 전통적이며 보편적인 판매 방식이다. 각 거래 서점에 KMC 도서 코너를 마련하여 판매 증진 및 홍보를 도모하겠다.
- 2) 온라인 쇼핑몰(www.kmcmall.co.kr) : 그동안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의 미비로 유명무실하였으나 현재 정상 운영 중이므로 외상거래를 원하는 교회들이 쇼핑몰을 이용하도록 외상거래를 최소화 하겠다.
- 3) 홍보 : 현재의 도서시장은 공급이 넘쳐나기에 적절한 상품 정보의 제공과 홍보 없이는 판매 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거기에는 전문학적인 홍보비가 필요한 형편이므로 현재의 재정운용 시스템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리교회에서 나오는 교재 및 성인공과(속회공과, 하늘양식)를 100%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홍보에 역점을 두도록 한다.

### 3. 도서출판 KMC(단행본)의 〈희망 프로젝트〉

도서출판 KMC는 한국 감리교회의 정체성 확립, 감리교 신학 발전에 이바지, 변화하는 시대에 감리교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지표와 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까지 지평을 열어 주고 평신도들을 제자화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함으로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사역을 감당코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1) 5,700 감리교회가 감탄하며 사용할 수 있는 전도지를 제작, 보급하여 영남선교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감리교회 부흥운동에 동력이 될 것이다.
- 2) 잡다한 일보다는 가능한 보다 중요한 사역에 집중하여야 한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국 교회 1,000만 성도에게 영향을 주고 사 볼 수 있는 베스트셀러가 나와야 할 때다. 세상의 도서는 100만 부의 베스트셀러가 있으나 신앙도서에서는 드물어 특히 KMC의 간절한 기도제목이다.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과 같은 베스트셀러가 나와야 할 때다. 믿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감리교회의 위상과 영향력을 상상해 본다. 꿈만 같은 이야기일까?
- 3) 모델이 없이 세상을 따라 교회까지도 본질을 떠나 소유 때문에 경쟁하고 싸우는 오늘의 한국 교회에 모델을 찾아 읽고 배우는 도서를 개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모델 선교사, 모델 원로목사, 모델 평신도, 모델 교회, 모델 어린이와 청소년....
- 4) 121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감리교회에 과거에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패배주의와 경쟁주의로 감리교회의 영웅이 나오지 못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현실을 탓하지 아니하고 홍보출판국에서 차세대 지도자를 발굴하고 문서로 큰 나팔 불어 홍보함으로 바위얼굴과 같은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도 힘써야 하겠다. 기대하시고 많은 기도와 지도 편달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4. 정기간행물(「기독교세계」「강단과 목회」「신앙과 교육」)

가정예배와 평신도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재인 하늘양식은 타 교파에서도 인정하는 추세다. 그러나 정기간행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뜨거운 감자요, 계류이다. 발간할수록 손해이고 마스크와 미디어

홍수시대에 미운 오리새끼처럼 희망이 없으니 암담하기만 하다. 특별히 「기독교세계」(1933년 창간) 915호 발간으로 초교파 한국 교회에 제일로 역사가 깊은 월간 잡지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세상의 사업이라면 벌써 망하고 도태되었을 것이다. 홍보출판국에 속한 14명의 직원이 땀 흘려 일한 열매를 쏴아 부어도 모자라는 과제물이다. 아무리 기도하고 상의해도 해답이 백인백색이니 답답하기만 하다.

IMF를 만났다고 생각하면서 2007년 상반기에는 최대공약수가 나오리라 확신한다. 홍보출판국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 5. 존 웨슬리의 영성과 삶을 회복함으로 감리교회의 <희망 프로젝트>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루터와 칼뱅보다 사랑하고 홍보하며 닮아야 할 신앙과 삶의 모범이 존 웨슬리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5,700 교회 8,700 목회자 150만 성도가 ‘웨슬리’로 사상화, 생활화, 기도화, 현장화 된다면 감리교회는 한국과 세계에 희망이 될 것이다. 21세기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이다. 존 웨슬리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도서출판, 홍보, 구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웨슬리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18세기 영국을 살리고 19세기 세계 선교의 종주국이 되게 하였고 20세기 미국 교회를 세워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었던 처음 감리교도들처럼 한국 감리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 6. 사람을 세우고 시스템을 만들어 <희망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홍보출판국의 기본 사역인 홍보와 출판사역의 중요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조금은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전문가들을 발굴하여 심도 있게 연구하고 기도하여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고 다윗처럼 회생하며 심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루를 한 달처럼, 한 달을 하루처럼 기쁘고 행복하게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 총무와 철인(鐵人)처럼 사역하는 직원들(예: 기독교세계를 한 사람의 직원이 만드는 직장, 야근을 밥 먹듯 하는 직장, 토요일이 휴무임에도 나와서 근무하는 직장)이 있기에 홍보출판국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 문서선교사와 직원들의 건강과 복지, 전문성의 향상으로 최고의 도서를 만들어 영업의 이익을 창출하고 본부 사역을 후원하는 홍보출판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 7. 협력하고 후원하는 홍보출판국

홍보출판국의 사역 자체로는 홀로서기를 할 수 없다. 하기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은 십자가(더하기와 회생)의 길이다. 특별히 가장 밀접한 곳은 교육국이다. 그러나 마지막 포커스는 선교국과 사회평신도국이고 이익을 창출할 뿐 아니라 재정의 투명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무국과도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세포와 핏줄 그리고 뼈와 관절의 마디마디가 연결되어야 하는 것처럼 홍보출판국은 섬기고 협력하고 후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장 많은 주인(고객)이 방문하는 본부의 얼굴과 같기에 모든 직원들은 웃고 친절하게 인사하면서 섬길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 8. 시작하고 계속해야 할 <희망 프로젝트>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슬로건 아래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희망도서관’ 사업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세워진 곳을 리서치하고 더욱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웬만한 지방 자치단체에는 도서관이 설립되었으므로 장소는 오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 완벽한 도서관을 세워 주는 것보다 ‘문 열기’로 해 주고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필요할 것이며 이미 수많은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교회 도서관을 검증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인증하고 격려하고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홍보함으로 미래의 꿈나무를 양육하고 독서운동을 활성화시킴으로 홍보출판국이 지향하는 문서선교사역이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9. <희망 프로젝트> ‘영남선교대회’ 까지 무엇을 할까?

- 1) 홍보출판국 총무 사무실에 ‘간이 도서관’을 만들어 본부 직원들이 독서할 수 있도록 섬길 것이다.(ex : 삼성 일렉트릭 사)
- 2) 스스로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청계천 땅 밟기 기도산책”, “광화문 빌딩을 중심으로 여리고 성 함락 전도하기”, “불씨” 기도운동을 전개함으로 영육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본부가 마가 다락방이 되도록 할 것이다.
- 3) 150만 독서운동 “책만 읽어도”(가칭) : 책만 읽어도 행복하고 성공하고 부흥한다. 선교사, 미자립 교회, 군 선교사 등에게 무료(후원금 및 광고 선교헌금)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도서 보내기” 운동을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독서운동을 발전시켜 희망의 감리교회를 세우고 미래 고객을 확보토록 한다.
- 4) 정직한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회도 부흥된다. 5,000년 민족의 역사 속에 책에 대한 잘못된 문화가 있다. 빌려간 책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과 삶이다. 그러나 국민 소득 2만 불 시대에 흔하디흔한 게 책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만 있으면 살 수도 있고 밀린 도서 대금을 갚을 수 있다. 물방울이 모여 시냇물이 흐르고 강물이 되듯 밀린 도서 대금을 완납하여야 홍보출판국이 든든히 설 수 있고 희망의 프로젝트 운동에 기여할 수 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할 때 성령께서 감동케 하셔서 “선교비” 차원에서 완납함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감리교회의 저력을 믿는다.
- 5) 지금은 유비쿼터스의 시대다. 평신도 단체와 협력하여 평신도 지도자들의 이메일 주소를(이메일) 입력시키고 모든 교회 목사들을 거미줄처럼 네트워크를 이루어 통신비를 절감하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도서를 홍보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 6) ‘희망투어’에 가능하다면 KMC 이동서점을 운영하고 밤에는 지역에 있는 한 교회를 선정하여 문서 선교 활성화를 위한 1일 부흥회와 특별 문서 선교 헌금도 접수토록 한다.
- 7) 모든 일은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로 동력화 되어야 한다. 기도 십자가를 제작, 보급하는 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짧은 기간에 직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많은 지도자들의 조언도 듣고 기도하면서 실천 가능한 일들을 생각해 보았다.

할렐루야! 민족과 세계에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가 될 것이다.

## 1. 개요

우리 감리교회는 한국 개신교회가 직면한 현재의 위기상황 속에서 사회와 교회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고자 힘쓰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의 비판이나 문제제기 수준을 넘어서, 문제 해결의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 길을 앞장서서 가겠다는 결의이다. 그러기에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관심보다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을 세우고 거기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훈련원에서는 현재의 교회적 위기는 부분적인 개선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위기이며, 따라서 ‘교회갱신’을 통해서만 극복이 가능하고, ‘교회갱신’은 ‘교회지도자들의 변화’와 ‘교회의 체질 개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희망프로젝트를 실천하기 위하여 교회지도자들의 변화를 위한 ‘영성’과 ‘지도력(Leadership) 개발’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영성’이 생명력이라면, ‘리더십’은 영향력이라 할 수 있다. ‘영성’ 없는 ‘리더십’은 무기력하고 ‘리더십’ 없는 ‘영성’은 무능할 수 있다. ‘영성’을 계발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력을 회복하고, ‘리더십’을 훈련해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해 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교회가 사회로부터 받은 지탄과 염려는 어떤 의미에서, 교회지도자들에게서 ‘영성’과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이러한 긴박한 요구 앞에서, 교회지도자들의 ‘영성’과 ‘지도력’ 계발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노력과 투자의 일차적인 목표는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파트너십(Partnership)형성’일 것이다. 감리교회는 이미 목회자와 평신도지도자 간의 협력과 조화 없이는 교회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 앞에서 동역자된 공동의 신앙고백과 자기의 사명과 은사에 따라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세상을 향하여 각자의 제사장적 사명을 고백하는 평신도사역의 시대, 교회가 사회를 부흥시키는 동반적 부흥을 감당해야하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회 내외적인 요구에 따라, 평신도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확대하여 평신도지도자들의 역량을 증대시키고 목회자와 건전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적절한 감리교 영성훈련체계를 수립해 가고자 한다.

## 2. 주요 업무

### 1) 감리교 영성훈련체계 수립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교단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웨슬리신학자, 영성훈련관계 전문가, 교단의 지도자들과 함께 논의하여 감리교 영성수련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가칭 감리교영성운동개발위원회를 결성하여 영성운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고자 한다. 동시에 이미

검증된 모범적인 영성훈련을 대표적으로 시행하여 속도감 있고 실질적인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웨슬리영성운동의 전형을 만들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일영연수원을 표본적인 영성운동의 요람으로 세워가고자 한다.

## 2) 정회원연수교육

목회현장에서 목회자가 스스로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을 따로 갖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의무적으로라도 목회자에게 학습과 교제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목회자가 자기성찰과 학습의 기회를 갖고 동료 목회자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목회자가 정기적인 연수교육을 통해서 학습과 노동과 기도 훈련을 경험하는 진정한 의미의 수련으로 발전시켜 가고자 한다.

## 3) ‘엠마오 가는 길’ (Walk To Emmaus)

이 프로그램은 지역교회 평신도지도자 들을 훈련시켜 개체교회의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그들의 영성과 지도력을 계발하여 지역교회 목회자들의 좋은 협력자가 되게 하고, 나아가 사회 속에서 모범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함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하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과정은 철저한 헌신과 겸손한 봉사, 그리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발굴과 양육의 정신, 또한 매사에 균형과 협력을 이루는 건강한 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교역자와 평신도지도자간에 건전한 파트너십이 요구되는 이때에 이러한 정신과 태도는 매우 바람직한 영향을 교회에 끼치게 될 것이다.

## 4) 목자학교

이 프로그램은 교역자(목사, 사모, 전도사)를 대상으로 매주 2일(월,화)씩 6주간의 강의와 1주간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되는 학교로 전, 후반기(2회)로 운영할 예정이다. 내용은 먼저, 목회자로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재확인으로 소명의 내적 확신을 새롭게 하고 둘째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목자의 마음을 되찾게 함으로써, ‘목자의 영성’을 회복시키려는 것이다.

# 비서실

실장 유희용 목사

‘희망프로젝트’는 4년 전임감독인 신경하 감독회장의 후반기 2년과 함께 갈 단기프로젝트로 기획됐다.

제19차 세계감리교대회(WMC)가 지난 2년 동안 감리교회를 이끌어 온 핵심 사업이었다면, 앞으로의 2년은 한국감리교회가 내세웠던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라는 모토를 개교회들과 함께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 가능한 실행지침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희망프로젝트’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감리교회가 한마음으로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목회자와 평신도의 열정을 하나로 묶어, 희망의 에너지를 만듬으로 한국감리교회의 새로운 갱신을 추구하는

‘희망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서실에서는 희망프로젝트가 이루고자하는 뜻과 감동회장님의 의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좌해 나갈 것이다.

### 1. “희망투어” – 연회본부 및 지방회, 평신도단체와 협의하여 추진

희망투어는 감동회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해 나가는 행사이니 만큼 비서실의 주 업무 가운데 하나이다. 지방회와 연회본부의 협조를 얻어 희망투어 본래의 목표를 이루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것이다.

### 2. 목회자 윤리강령 구체화

- 1) 감리교회 목회자 윤리를 새롭게 천명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존경받는 목회자 상을 수립한다.
- 2) 절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강령이 되도록 한다
- 3) 교회 사유화 문제를 심도있게 다룬다.
- 4) 성직위원회를 통해 실천한다.

### 3. 추진본부의 업무조율

본부내 Task Force팀을 운영하여 희망프로젝트를 점검하고, 독려한다.

### 4. “희망프로젝트”의 대외 홍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이미지개선과 강화를 위한 홍보업무를 수행한다.  
특별히 감리교이미지통합작업(Church Integration)을 전개한다.

### 5. 감리교회의 장기계획수립을 위해〈백서〉를 발간한다.

### 6. 연회가 추진하는 ‘이준열사순국100주년기념사업’(중앙연회), 구 철원제일교회 복원사업(동부연회)을 지원, 협력한다.

## 목회자 윤리강령

### 경과

이 윤리강령은 제26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입법의회에 상정하려 하였으나 좀 더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다음 총회에 상정기로 한 바 있다. 처음 신동일, 박봉배, 안석모, 김흥규, 김영일, 한정석, 김고광, 최이우, 김진두, 이기복, 박노권 목사에게 연구를 맡겨 초안을 마련하였고, 제2차 연구과정에서 박봉배, 김흥규, 김진두, 유경동 목사가 재정리하였으며, 제26회 총회 성직위원회(위원장 김한옥)에서 확정하여, 제27회 총회에 상정하여 시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현재 총회실행부 위원회 소위에서 문안 검토 중이며, 2007년 2월 총실위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사회, 경제, 정치적인 불안 속에서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상실한 채 물질주의와 도덕적 퇴폐가 만연한 이때에, 이를 영적이며 도덕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은 실로 중대한 일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과 목회 사역에 있어서 온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지 깊이 자문하게 된다. 예수님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마 10:9)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청빈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주님은 세상의 집권자들과 달리 "섬기는 자"(막 10: 43)가 되라고 강조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반성한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바르고 신실하게 살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사회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룩한 요청 앞에 서 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주님의 본을 따라 겸손히 섬기는 삶을 실천함으로 "양 무리의 본이 될 것"(벰전 5:3)을 엄숙히 다짐하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교리를 믿었는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였다. 이는 감리교회 목회자들에게 무엇보다도 높은 윤리적 삶이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요청을 우리의 삶과 목회에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감리교회 목회자들은 아래와 같이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 윤리강령’을 선언한다.

1. 우리는 성직자로서 참된 믿음과 깊은 영성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간다.

- ① 우리는 영적으로 늘 각성하여 말씀과 기도에 전심한다.
- ②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영적인 나태와 세속적인 유혹을 극복하며,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 ③ 우리는 매사에 절제하는 삶을 살며, 섬기고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목회한다.

- ① 우리는 교인들을 사랑과 신뢰로 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 ② 우리는 늘 기도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설교를 준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를 선포하며, 다른 사람의 설교를 표절하지 않는다.
- ③ 우리는 교인들을 상담할 때 얻은 내용을 누설하지 않으며, 교인들과 관계에서 성 윤리와 경제적 규범을 철저히 준수한다.

3. 우리는 자랑스런 감리교회의 목회자로서 감리교회를 성실하게 섬긴다.

- ① 우리는 [교리와 장정]의 법과 규칙을 준수하고,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 ② 우리는 감리교회의 각종 선거에 있어서 학연, 지연, 파벌을 초월하고 금권 선거를 일체 배격한다.
- ③ 우리는 통계표를 정확하게 작성 보고하고 부담금을 정직하게 납부한다.
- ④ 우리는 감리교회 안에서의 성직매매, 비윤리적 후임자 선정 등을 단호히 배격하며 우리 감리교회가 법과 질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4. 우리는 소명 받은 동역자로서 일체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동료 목회자들을 돕고 격려한다.

- ① 우리는 남녀, 노소, 인종, 학력, 교회규모 등에 따라 동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 ② 우리는 선후배간에 서로 존중하고 아끼며 어려움에 처한 동료들을 적극 돕는다.
- ③ 우리는 동료의 사생활과 개인적 권익을 존중하며 동료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언행을 삼가한다.



5.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로서 청렴하고 검약한 삶을 살아 교인들의 본이 되도록 노력한다.

① 우리는 교회재정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용되도록 지도 감독한다.

② 우리는 금전거래에 있어서 신중하고 개인적으로는 채무를 지지 않으며 공적인 채무는 신속하게 변제한다.

③ 우리는 금주, 금연, 마약퇴치 등에 앞장서며 인터넷 악용, 투기적이고 불건전한 오락 등을 배척한다.

④ 우리는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자제하고 근검절약하는 생활에 앞장선다.

6. 우리는 가정의 책임자로서 신앙과 사랑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① 우리는 양가 부모들에게 효도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대로 양육한다.

② 우리는 목회에 최선을 다하며 동시에 가정의 행복과 가족의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서 힘쓴다.

③ 우리는 결혼제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이루어진 신성하고 순결한 것임을 믿으며 이를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한다.

7. 우리는 성숙한 시민이요 사회의 책임적인 일원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 위에 바로 서도록 기도하며 적극 앞장선다.

① 우리는 국가의 올바른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며 부정부패를 퇴치하는 일에 앞장선다.

② 우리는 정직한 언행을 생활화하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불신풃조를 추방하는 일에 앞장선다.

③ 우리는 음란, 퇴폐, 사치풍조 등을 추방하는 일에 앞장선다.

④ 우리는 오늘의 극도로 양극화된 현실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⑤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며, 자연과 생태환경이 파괴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힘쓴다.

우리 감리교회 목회자 일동은 위와 같은 목회자 윤리강령을 마음속에 새기며 최선을 다해 이를 실천할 것이며 만약 이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감리교회의 어떠한 규제나 정책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 감리교인 생활수칙

## 경과

사회평신도국에서는 일찍이 감리교인들이 생활 속에서 신실하고 바른 복음적인 삶을 실천함으로써 영성을 회복하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생활 수칙을 이미 2003년에 마련해서 매년 평신도주일 자료집과 월례회공과 등을 통해 보급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 8월부터 사회평신도국 컨설팅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타 교단 및 사회단체의 유사 사례를 수집, 검토하고 그 동안의 실천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항목과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희망 프로젝트'의 제1사업인 '영적각성실천운동'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감리교인 생활수칙'을 제정하게 되었다. 제27회 총회에 상정하여 실행할 것을 결의하였고 현재 총회실행부 위원회 소위에서 문안 검토 중이며, 2007년 2월 총실위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1. 주제성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 2. 취지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선교 120년을 맞이하여 감리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전도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바르고 신실한 믿음생활을 사회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이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은 감리교인의 생활규칙을 제정하고, 그 실천운동을 범 교단적으로 전개하려고, 감리교회의 생활 수칙을 만들어 공포하는 바이다.

## 3. 목표

- 1) 웨슬리의 성화론적인 신학과 신앙의 원리를 규칙으로 삼아 지킨 감리교회의 신앙전통을 이어받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 2) 기독교인의 삶의 표준을 사회생활을 위한 수칙으로 선포하고 지키게 함으로 감리교인의 도덕적 수준을 드높인다.
- 3) 하나님의 축복을 불우한 이웃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어 교회를 부흥시킨다.

#### 4. 생활 수칙

##### 1) 교회생활 수칙

- ① 교우들을 대할 때 누구에게나 형제와 자매처럼 친절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존경과 예우로 한다.
- ② 교회 내에서 교우 간의 호칭은 직분(집사, 권사, 장로)에 따라 부르고, 직분에 벗어나지 않도록 예의를 갖추어 쓰도록 한다.
- ③ 교회의 모든 물품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고, 교회의 각종 시설을 깨끗이 사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④ 우선적으로 어려운 교우들을 돕고, 환난 당한 교우들을 최선을 다하여 돌보아 주되, 보증을 서는 일이나 금전거래는 피한다.
- ⑤ 예배나 각종 모임의 시간약속을 잘 지켜서 신실성을 보여주고,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⑥ 다른 교우들의 약점을 들추거나 헐뜯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자.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죽이고, 본인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든다.
- ⑦ 교회의 모든 일은 나누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힘쓰고, 주관하는 사역보다 뒤에서 협력하고 보좌하는 습관을 갖는다.
- ⑧ 성도의 사생활이나 허물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속회에서나 선교회에서 상담하고 일어난 일을 다른 교우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불확실한 말을 전하는 것이 사단이 틈타는 루트이다.
- ⑨ 교회의 일은 교회 밖에서 거론하지 말고, 교회의 부정적인 일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 ⑩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나의 이를 구하거나 자리를 탐하지 말자.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 2) 가정생활 수칙

- ① 평등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가정의 대소사는 부부가 함께 상의하고, 가족회의를 열어 결정한다.
- ② 「하늘양식」으로 주간 마다(혹은 매일 매일) 가정예배를 드려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고, 마감기도는 부모님이 함으로 부모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숙지시킨다.

- ③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훈을 만들어 가족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 ④ 가정의 규칙을 만들어 지키게 함으로 공익을 우선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시민정신을 갖게 한다. (귀가시간, TV시청시간, 식사시간 등...)
- ⑤ 매주 한 번씩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함으로 가족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품위 있는 식탁 예절을 배우게 한다.
- ⑥ 모범가정 상을 제정하여 해마다 시상함으로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생활을 드높인다.
- ⑦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음악, 연극, 등을 개발하여 기독교문화를 창달하는데 힘쓴다.
- ⑧ 자녀들의 의식주 및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을 시키는 데는 최선을 다 하여 투자하되, 유산은 물려 주지 않는다.
- ⑨ 관혼상제를 간소화하여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청빈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한다.
- ⑩ 술, 담배, 도박, 마약 등 사회악을 추방하는 데 앞장서고 생활 실천 계몽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한다.

### 3) 일반생활 수칙

- ① 동회, 반사회, 부녀회, 노인회 등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②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 거주할 경우 이웃에게 소음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작은 소리로 대화한다.
- ③ 환경공해를 일으키는 물건은 되도록 적게 쓰도록 한다.
- ④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엄격히 구분하여 행동하고, 공공건물이나 물품 및 공동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는 시민정신을 함양시킨다.
- ⑤ 차량을 운전할 때 양보운전을 습관화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 ⑥ 이웃에게 바르고 정직한 삶을 보여 줌으로 기독교인의 품위를 고양한다.
- ⑦ 직장의 동료들에게 항상 솔선수범 하고, 허드레한 일을 내가 도맡아 하며, 책임은 내가 지고, 칭찬은 동료에게 돌리는 리더의 자질을 키운다.
- ⑧ 마을회관, 파출소, 동사무소, 노인회관 등 지역사회의 공익기관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여 격려하고 봉사함으로 애향심을 기른다.

- ⑨ 시간을 잘 지키고 약속을 엄수함으로 신용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 ⑩ 어른을 잘 공경하고, 어린이, 부녀자 등 약한 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장애인을 보호하고 도와준다.

#### 4)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수칙

- ① 창조질서 보전운동은 자원절약을 생활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아껴 쓰고, 덜 쓰고, 바로 쓰고, 다시 쓰고, 나눠 쓰자.
- ② 재활용은 자원절약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중고품을 서로 교환하여 이용한다.
- ③ 샴푸, 린스, 세제, 스프레이 등 공해물질을 덜 쓰거나 쓰지 않는다.
- ④ 오염물질이 하천에 배출되지 않도록 폐수는 반드시 정화시설을 통하여 배출되도록 한다. 비닐을 적게 쓰고 특별히 농산물 포장에 유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⑥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분량을 줄이고, 내가 남긴 쓰레기는 내가 처리하고, 버려진 휴지를 줍는 습관을 기른다.
- ⑦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담배꽂초나 껌, 침 등을 함부로 뱉지 않는다.
- ⑧ 공원과 공공장소의 시설물을 아껴서 사용하자. 문화생활의 바로메타는 공공화장실 사용에 있다. 다음에 이용하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깨끗하게 사용한다.
- ⑨ 탐욕을 버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한다.
- ⑩ 교회 및 NGO 시민단체에서 벌리는 환경보전을 위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한다.

#### 5) 정직운동 실천을 위한 수칙

- ① 날마다 정직한 마음을 갖도록 기도한다.
- ② 정직선언서를 만들어 서명하여 마음에 새기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소에 부착하여 날마다 묵도하게 한다.
- ③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한다.
- ④ 약속을 꼭 지킨다.
- ⑤ 정직이 최선의 방책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 ⑥ 공공질서를 잘 지킨다.
- ⑦ 부정한 뇌물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 ⑧ 검약생활에 본보기가 된다.
- ⑨ 국가의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교회의 통계표를 정직하게 보고한다.

- ⑩ 지방이나 연회의 각 선교회 단체에서 주관하는 크고 작은 행사 때 마다 정직 캠페인을 벌려 범교단적인 운동으로 전개되도록 한다.

#### [교회 임원 10계명]

- ① 나는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고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한다.
- ② 나는 성경대로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 축복의 씨앗으로 삼는다.
- ③ 나는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바대로, 정시로 새벽에 기도하고 무시로 항상 기도에 힘쓴다.
- ④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⑤ 나는 믿음생활의 표준인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날마다 읽고 묵상한다.
- ⑥ 나는 몸과 마음과 재물을 바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다.
- ⑦ 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성도로서 거룩한 생활에 흠이 되는 오락과 폭력 및 주초를 금하고 언행 심사를 조심한다.
- ⑧ 나는 감리교도로서 교리와 장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 공식회의에서 협의되고 가결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따른다.
- ⑨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평화적 통일에 힘쓰며 사회를 깨끗하게 하는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한다.
- ⑩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최고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잘 가꾸고, 창조될 서 보존에 힘쓴다.

#### [교회 직원 십계명]

- ① 직원은 서로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여 일한다.
- ② 자기 분야의 업무는 소신 있게 기획하고 추진하며, 지휘권자(담임목사)에게 반드시 보고한다.
- ③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삼가고 할 일이 없을 때는 전도 및 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 ④ 사무실 안에서 큰소리로 대화하거나 불필요한 잡담을 피한다.
- ⑤ 이성과 단둘이 식사나 상담을 피한다.
- ⑥ 관련 부서장 외에는 교회의 내적인 일을 교인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 ⑦ 일일 업무 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퇴근시간에 사무원(혹은 간사)에게 제출한다.
- ⑧ 교회 및 담임목사에 관한 부정적인 말을 피하고, 직원 상호간에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 ⑨ 인사는 먼저 본 사람이 큰소리로 하면 일어나서 화답한다(사무실에 첫 출근 시).
- ⑩ 다른 직원들의 신실성을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

## 10대 실천과제(2005~2008년)

### 1. 선교 120주년과 민족복음화를 위한 새 비전 창조

▶ 기획홍보부

#### 1) 목표

선교 120주년과 광복 60주년을 맞아 천명한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는 역사적 의미와 미래적 역할을 담고 있다.

감독회의가 제안한 영적각성운동은 과거에 대한 회개와 정체성 강화를 통한 감리교회의 거듭남과 부흥을 지향한다. 이것은 외적으로 실추되었던 한국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내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전도환경의 활력을 모색하는 일이다.

특히 한국교계에서 감리교회의 선도적 역할과 민족복음화에 대한 통합적인 선교비전을 강화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 2) 내용

- ①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라는 주제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을 점검한다.
- ② 영적각성운동을 통해 감리교회의 역사적 회개와 감리교인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한다.
- ③ 감리교회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과정으로서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작업을 활성화 한다.
- ④ 선교 120주년을 맞아 자료 및 역사 정리와 통합적 보존 작업을 한다.
- ⑤ 한국 교회 연합운동에서 감리교회의 책임과 주도적 역할을 강화한다.
- ⑥ 감리교회 이미지통합(Church Integration)과 본부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
- ⑦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참여과정을 통해 민족복음화의 기틀을 마련한다.
- ⑧ 북한교회와 아시아교회 및 세계교회와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

#### 3) 실행한 일 (2005-2006. 9)

- ① “희망” 정책을 담은 2005년과 2006년 본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것은 본부의 정책과 업무를 시스템화 하는 것으로 현장교회의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이다. 10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희망” 정책의 본부 내 협력을 위해 정책 TF를 운영하고 있다.

- ② 감독회의 영적각성선언문을 발표하였다(2005. 3). 하디선교사 영적대각성운동기념비를 양화진 가족묘역에 건립하였다(2006. 5).
- ③ 장정개정을 통해 감독회장 직속기구로 장단기발전위원회(위원 37명)를 출범하였고, 현재 5개 연구소그룹으로 활동 중이다. 단기 과제로 ‘희망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제27회 총회에 상정한다.
- ④ 광복 60주년 기념예배자료집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를 제작, 배포하였다(2005. 8). 이준열사 순국 99주년을 맞아 기념주일예배자료집을 제작, 배포하였다(2006. 7).
- ⑤ 감독회장의 NCC 회장역할과, 4년 전임제 감독회장직을 활용하여 연합운동에서 화해, 중재,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⑥ 중앙일간지와 교계언론(주간, 방송, 인터넷)에 감리교회의 지면이 확장되고 있다. 이를 지속하기 위해 출입기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례적으로 교계언론초청 홍보세미나를 열고 있다. 영상물 4개 프로그램(임원대회 영화, 광복 60주년, 역사와 비전, WMC 기념주일)을 제작하였다. 홍보리플렛(한/영)과 WMC 용 영문홍보집(80면)을 제작, 배포하였다. 감리회 주관과 후원으로 전국 주요도시에서 세계의 십자가전을 9차례 개최하였다.
- ⑦ 서부연회가 조그련과 관계를 통해 교류, 지원, 신학교육 후원 등을 계속하며, 사업이 확대 중이다. 제1회 평화통일국제포럼(2006. 4)을 미국 UMC 북일리노이연회와 협력하여 개최하였다.
- ⑧ 제19차 세계감리교대회를 개최하였고, 감독회장이 제19차 WMC 총회 공동의장을 맡았다. 아시아감독회의(FAMB), 아시아감리교협의회(AMC) 등 아시아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WCC 중앙위원과 실행위원(정해선)으로 선출되었다.

#### 4) 추진할 일 (2006. 10-2008. 10)

- ① “희망”정책의 구체적 실천방안인 ‘희망 프로젝트’를 실천한다. 2007, 2008년도 본부 정책자료집의 완성도를 높이고,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10대 실천과제를 더욱 집중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낸다.
- ② 영적각성운동의 실천차원에서 목회자윤리강령, 사회규약, 감리교인 생활수칙 등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이를 감리교회와 감리교인 정체성 회복과 강화로 높인다. 제27회 총회와 2007년도 연회, 전국임원대회(2007.5)를 통해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 ③ 장단기발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장정개정과 실무에 반영하고, <장기발전백서>로 발



간한다.

- ④ 배재학당과 협력하여 아펜젤러 노블박물관 건립에 참여한다. 이준열사 순국 100주년 기념교회, 철원 평화통일교회 건립을 지원하며, 감리교 역사 및 문화순례지(국내 12, 해외 3)를 발굴하여 순례지도화 한다. 역사 영상물(아펜젤러, 이준, 평화통일선교 등)을 추진한다.
- ⑤ 2006년 12월 NCC 등 연합기관 파송인사를 전문성과 참여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배치한다. 가톨릭, 루터교와 청의론 합의서명을 계기로 가톨릭과 관계와 프로그램(공동예배, 세계기도일, 지역교류)을 확대한다.
- ⑥ 감리회 브랜드 파워를 높인다. 본부와 현장교회, 인물발굴 등 종합적 홍보전략을 세워 감리교회 인지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한다. 참 감리교회 모델을 개발하고, 참 감리교인을 모범화 한다.
- ⑦ 2007년 10월, UMC 북일리노이연회와 연합하여 미국에서 평화포럼을 계속한다. 향후 남북상황의 발전에 따라 북한 칠골교회의 신축에 대한 후원요청을 검토하여 지원을 추진한다(서부연회). 북한선교를 위한 화해와 평화의 환경을 조성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든다.
- ⑧ UMC와 세계감리교회 외에 국제기관 참여와 협력관계를 모색하여 추진한다.

## 5) 평가

- ①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란 슬로건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희망프로젝트를 힘 있게 추진하여 감리교회의 대외적 브랜드를 높여내야 한다.
- ② 영적각성운동이 위로부터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제 2007년 영적각성 100주년을 맞아 현장교회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범 감리교회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③ 본부의 정책과 업무가 일의 결과 보다 과정과 단계를 중요시 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 ④ 역사적으로 획을 긋는 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⑤ 민족복음화의 과제가 현실적으로 후퇴하고 있으며, 시류에 따라 선교적 과제가 퇴보할 우려가 있다.
- ⑥ 세계교회와 협력할 인적자원이 발굴, 훈련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 파송이 필요하다.
- ⑦ 마지막 단계의 백서 등 정리 작업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

## 2. 300만 총력전도운동과 미자립교회의 자립기반 마련

▶ 국내선교부

### 〈300만총력전도운동〉

#### 1) 목표

300만 총력전도운동을 통하여 교인 수 및 교회 수의 5% 이상의 성장을 가져오도록 한다

#### 2) 내용

- ① 300만 총력전도운동을 교회성장정책의 핵심으로 삼는다.
- ② 꾸준한 전도교육 및 전도훈련을 통하여 교회성장을 추진해 나간다.
- ③ 효과적인 기관, 단체, 특수선교를 통하여 선교의 장을 넓혀 나간다.
- ④ 감리교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선교활동을 펼쳐 나간다.

#### 3) 실행한 일(2005~2006. 9)

- ① 300만 총력전도운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홍보하여 교회마다 교인 배가운동으로 정착되도록 하였다
- ② 웨슬리전도학교의 지속적인 전도교육, 훈련을 통하여 전도운동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도록 하였다. 국내 뿐만 아니라 미주특별연회까지 웨슬리전도학교를 개설하였다.
- ③ 교육국과 함께 어린이 30만 전도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 ④ 2006년도 각 연회별 통계자료를 정리하여 교회성장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 ⑤ 각 연회 전도왕을 초청하여 격려하고 전도 사례를 정리하였다.

#### 4) 추진할 일(2006. 10~2008. 10)

- ① 300만 총력전도운동을 계속 교회성장 프로그램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② 각 지방단위로 전도대를 구성하여 전도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 ③ 2007년에 영남선교대회를 추진하여 영남지역 부흥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 ④ 2007년 초에 전도박람회를 개최하여 1907 영적대각성운동의 의미를 전도부흥운동으로 연결한다.
- ⑤ 정책적인 중형교회 개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성장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 ⑥ 웨슬리전도학교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전도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

한다.

- ⑦ 전도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개체교회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다.

## 5) 평가

세계감리교대회 등 타 현안에 밀려 300만 총력전도운동이 주춤해진 결과를 가져왔다. 더 증가된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웨슬리전도학교 및 부흥단과의 연대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선교부의 교회성장정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였고 계속 내 교회 부흥운동이라는 차원으로 지속할 것이다.

## 〈미자립교회 성장정책〉

### 1) 목표

미자립교회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성장계획을 수립한다

### 2) 내용

- ① 미자립교회에 대한 규정을 정리하고, 실태에 대한 조사를 정확하게 한다.
- ② 미자립교회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는 선교전략을 수립한다.
- ③ 미자립교회와 관련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적으로,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 3) 실행한 일(2005~2006. 9)

- ① 미자립교회 기준에 대하여 경상비 결산 2500만원 미만으로 정하였다. (2006년 1월 26일 총회실행부회의)
- ② 2006년 5월에 미자립교회 관련 자료집을 발간하였다.(정책, 사례, 현황, 통계 수록)
- ③ M-Project : 실험교회 운영을 통한 미자립교회 극복 프로젝트 시작 (2006.05-2007.10)
  - 33개 교회 서류 접수
  - 5/17(수) 11:30. 감신대. 컨설턴트 준비모임
  - 5/19(금) 10:30. 본부 회의실. 서류 접수자 예비모임
  - 6/1-2(목-금). 포천 광림세미나하우스, 세미나 (32명 참석)  
주요 강사: 최승호, 김형래, 이성민, 박해정, 장성배, 태동화
  - 6월말: 각 분야별(설교 동영상포함) 자료 검토, 최종 7개 교회 선정
  - 8/25: 출범예배(연회총무 및 지방감리사, 교인대표 등 참석), 현관수여식, 세미나

## 각 교회 방문 컨설팅

- 계속사업: 정기 워크숍, 후원교회 연결, 교회별 특화 성장전략 추진, 세미나 실시

### 4) 추진할 일(2006. 10~2008. 10)

- ① M-Project 지속적인 진행
- ② 지방, 연회, 본부 대책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
- ③ 여건적인 미자립교회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준비
- ④ 정확한 실태 조사 및 자료집 발행
- ⑤ 타교단 또는 기타 관련 기관의 자료 비교 검토 및 정리

### 5) 평가

구체적인 자료 준비 및 정리단계에 주력하였다. 발전적 미자립교회 프로그램인 M-Project 진행은 감리교 뿐만 아니라 타교단에서도 매우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여건적인 미자립교회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을 통하여 정주목회 및 안정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침체된 미자립교회가 과제이다.

## 〈미자립교회 최저생활비정책〉

### 1) 목표

미자립교회 교역자의 최저생활비 문제에 대하여 정책을 수립한다.

### 2) 내용

- ①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구체적인 최저생활비 기준을 마련한다.
- ②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최저생활비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 나간다.
- ③ 정책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전문기관을 만든다.

### 3) 실행한 일(2005~2006. 9)

- ① 2006년 5월에 미자립교회 관련 자료집을 발간하여 구체적인 교역자의 신상 및 자료정리를 하였다.
- ② 미자립교회를 위한 부담금 책정안이 입법의회에서 부결된 후 지방 및 연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유도하였다.

#### 4) 추진할 일(2006. 10~2008. 10)

- ① 더욱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연회 및 지방에 제공한다.
- ② 1차적으로 지방, 2차적으로 연회 차원에서 소속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정확한 생활실태 및 관련 자료를 정리하도록 한다.
- ③ 본부 및 연회, 지방 대책위원회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 5) 평가

팔목할 만한 결과물이 없다. 정확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현재로서는 지방 및 연회 차원에서의 활동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 본부 대책위원회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 3. 세계감리교대회 성공을 통한 세계선교강화

▶ 국외선교부

#### 1) 목표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의 구체적인 모토인 희망프로젝트는 제19차 세계감리교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높아진 선교적 위상에 부응하고 21세기 세계선교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역사적 의미와 미래적 역할을 담고 있다.

이 책임적 역할은 희망 프로젝트의 3대 목표 중 “세계(세상)으로 나아가는 감리교회의 중심 과제이다. 세계교회들과 협력하며 세계선교 지도력을 개발해 나가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한국 감리교회의 선교에너지를 증대시켜서 교단 전 교회들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역교회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선교사 관리 종합시스템을 정비하여 다원화되는 세계 추세와 변화를 요구하는 세계선교의 동향에 부응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데 있다.

#### 2) 내용

- ① 미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국(GBGM)을 비롯하여 세계교회들과의 선교협력과 협약을 확대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수립한다.
- ② 선교사 관리와 후원 시스템을 통일화 시켜나간다.
- ③ 급증하는 선교사야 세계선교 과제에 부응하기 위한 세계선교부서의 확장과 독립을 추

진한다.

- ④ 세계선교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과 지도력 개발에 최선을 다한다.
- ⑤ 개체교회의 선교참여를 활성화하고 평신도 전문인, 단기 선교사 제도를 강화한다.

### 3) 실행한 일 (2005~2006. 9)

- ① 1차적으로 제19차 세계감리교대회와 가치와 효과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해 교단 내의 공감대 저변 확대를 교회 간의 친밀감을 갖도록 추진하였다.
- ② 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365기도 운동'을 전국교회가 동참케 유도하고 독려했다.
- ③ 임진각 평화통일기원예배를 통해 평화통일을 향한 화해 조성에 기여하였다.
- ④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전국 교회 교인들이 대회 준비 및 진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케 하였다.
- ⑤ 본 대회 준비를 위한 대외활동으로 감리교 형제 교단, 개신교 주요 교단장들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⑥ 대 정부 활동을 전개하여 구체적인 협조를 구하여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감리교회가 한국사회와 정부에 긍정적 협력체임을 인시시키고,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세계감리협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 ⑦ 교단 내 홍보를 위하여 전국 교회에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몇 개의 홍보용 현수막(Sample)을 제작 안내하고, 설치를 독려했다.
- ⑧ 서울시를 통하여 교통, 구급, 서울시 안내, 홍보물 부착 등등의 협조를 구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장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항 영접부터 입국 사증 발표 협조, 시내 교통편의, 안전 관계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 ⑨ WMC 본부와 협의하여 본 대회를 지지하고 선교를 위하여 협조할 수 있는 국제적인 인사들을 일부 초청하여 협력적인 연설을 청탁하였다.

### 4) 추진할 일 (2006. 10~2008. 10)

- ① “희망”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인 ‘희망 프로젝트’를 위한 3대 정책, “세계(세상)로 나아가는 감리교회를 실천한다. 세계 속의 한국 감리교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연계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대외 선교협약을 구체화하는 협의체를 조직하여 실천해 나간다.
- ② 세계선교 협력 강화와 글로벌 선교 네트워크를 확립한다. ‘타자를 위한 선교’(Mission for others)에서 ‘타자와 함께 하는 선교’(Mission with others)로 세계선교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선교적 영향력과 효율성을 확대해 간다.

- ③ 선교사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세계선교부서를 확대함과 동시에 독립한다. 21세기 세계선교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선교사 관리 및 후원 구조의 획기적 변화와 종합적인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 ④ 선교자원을 개발하고 지도력을 강화해 나간다. 세계선교 동력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력 개발과 선교자원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원화 채널을 소화할 수 있는 양질의 선교사 자원을 양성해야 한다.
- ⑤ 세계선교 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한국 감리교회는 선교 120년을 넘어서고 1000명의 선교사 파송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감리교 세계선교의 요람이요 중심이 될 선교센터 마련이 요구된다.
- ⑥ 은퇴선교사를 위한 선교사 실버타운을 건립한다. 향후 7년이 지나면 은퇴하는 선교사들이 속속들이 귀국할 것이다. 선교사관리의 초기 단계인 선발, 훈련, 파송 정책도 중요하다. 그러나 맡겨진 사역을 마치고 귀국한 은퇴선교사의 생활과 은퇴 후 사역에 대한 케어가 총체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 실버타운을 국내에 추진될 세계선교 센터 내에 둘 수도 있고 해외에 건립하여 선교지 교회와의 대외협력선교를 연계하고 아울러 선교기자로서 선교투어하며 서교사관리 및 선교지의 생생한 소식을 본부 선교국과의 종합적인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협력한다.
- ⑦ 지역교회의 세계선교 참여 확대 및 선교활성화를 이루어 간다.  
한국교회의 80%가 세계선교에 소극적이라는 통계자료가 있다. 한국 감리교회의 세계선교 온도계 100도로 향상시키는 운동을 점진적으로 확산시켜서 세계를 품은 교회로서 선교비전과 참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선교교육, 선교기도운동, 선교지 단기 방문 등을 위한 프로그램과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
- ⑧ Senior선교사대회를 개최한다.  
희망 프로젝트를 세계선교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선교지에서 다양한 선교프로젝트가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프로젝트 건설을 위하여 Senior선교사들의 선교경험과 선교지의 상황을 수렴하여서 앞으로 더욱 더 현장의 선교사역들은 희망프로젝트 산하에서 풍성하고 다양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 ⑨ 주파송교회 및 협력 교회 발굴 및 후원 시스템을 개발한다.  
선교사들의 정보에 대한 노출로 인한 피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교회들이 보다 선교현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선교대회, 선교사역 보고회, 정책 세미나, 선교뉴스레터 등을 통해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모토를 전달한다.
- ⑩ 선교사 위기관리 지원 시스템을 개발한다.

후원교회 지원 중단에 따른 사역 유예기간을 제공함으로 국외선교정책의 운영규칙을 확충하여 즉각적으로 새로운 후원교회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일시 지원금을 제공하면서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후원교회들을 중심으로 해당 선교사들의 위기 및 재난을 당할 시에 임시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당 선교사회로 기금을 적립하고 지원한다.

##### 5) 평가

- ① ‘세계로 나가는 감리교회’를 추진함으로 희망프로젝트의 브랜드의 가치를 향상시켜야 한다.
- ② 선교협력 분야를 영국감리교회, 캐나다 연합교회를 비롯하여 세계교회들과 새로운 선교협약을 추진하며, 아시아 감리교회협의회(AMC)에서 주도적으로 리더쉽을 발휘하며, 아시아 감리교회들 간의 선교교류와 지도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 ③ 중국교회와의 교류를 다원화 채널에 맞추어 확대하고 선교협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 ④ 선교사 파송 시 선교지 교회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적 파송을 기대해 본다.
- ⑤ 선교지별(나라별, 지역별)로 선교사 관리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종합적으로 강화하고 선교사와 후원단체를 묶어 창구를 통일하면 세계선교의 구심점이 형성되어 조직적이고 통일된 선교정책이 수행될 전망이 있다.
- ⑥ 선교사 훈련, 관리, 복지를 위한 종합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내년 입법의회에 상정하고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되어야 한다.
- ⑦ 선교사 훈련 과정에서 우선 훈련 커리큘럼을 단일화하고 상호 연계교육을 확대하면서 단계적 통일을 기하여 통합된 훈련원을 행해 나가고 아울러 좀 더 전문화된 집중훈련이 필요하다.
- ⑧ 현지인 지도자 훈련과 양성 프로그램(현지 교육과 한국 초청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한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조선족 가운데 영적 지도자를 발굴하여 교육(훈련), 재 파송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⑨ 국내 외국인근로자선교를 하는 지역교회 및 선교단체와 연계하여 외국인근로선교 전문 인력을 교육(훈련)하여 파송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 ⑩ 선교사 게스트 하우스 마련을 위해 시설을 갖춘 개체교회에 대한 명세서를 파악하고 연결과 소개를 확대하며, 연회와 본부 차원에서도 시설을 확보해 나간다.
- ⑪ 세계선교센터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범감리교회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 ⑫ 개 교회에 감리교회 세계선교 현황과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본부와 연회, 지방 차원의 세계선교 프로그램에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 ⑬ Mk 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고 우선 선교사 자녀 명세서를 파악하고 선교사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과 Mk교사 파송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선교사의 자녀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차세대 선교사로 양육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아울러 여성문제를 포함한 복지사역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 4. 미래의 희망 - '청소년 평화세상 만들기' 운동

▶ 학교교육부 · 교회교육부 · 제자교육부 · 교육원

### 1) 목표

#### ① 청소년 납치 폭력 예방

미래 이 나라와 민족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납치와 폭력에서 보호받아 안전하게 호연지기를 키워나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지향한다.

#### ② 청소년 상호간의 화해와 사랑

청소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청소년 자신들 간의 화해와 사랑으로 왕따와 폭력이 없는 청소년 스스로의 평화 세상을 지향한다.

#### ③ 지역사회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는 이미지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위상 정립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해 나가는 우리 감리교회를 긍정적 의미로 선전하여 감리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 선교를 지향한다.

### 2) 내용

#### ① 배경

청소년 납치, 폭력 등의 청소년 유·위해 사건 발생의 양적증가와 저 연령화, 흉포화, 집단화 현상 등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청소년 문제로 전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청소년 문제가 감리교회가 가장 우선 해결해 나갈 과제라고 판단하여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 ② 방법

가. 청소년 안전망 구축 : 교회와 학교 주변 등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지역의 업소들에 “청소년 도움의 집”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청소년들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하도록 한다. 청소년의 유·위해 상황 시 도움을 줄 차량과 개인에게 “청소년 도우미”라는 스티커를 차량 앞유리 우측 상단에 부착하거나 가슴에 “청소년 도우미” 배지를 부착하여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청소년들 사이의 평화세상 조성 : 모범적이고 리더십을 갖춘 청소년들을 청소년 자체 상담 도움으로 교육하고 지역단위의 청소년 자치조직을 활성화 하여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왕따와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 교회의 역할 :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소 확보하여 “청소년 도움의 집” 스티커를 부착하게 하고, 온 교우들의 차량에 “청소년 도우미” 스티커를 부착하여 이 운동에 참여하고, 모든 교인은 전도대원들을 중심으로 “청소년 도우미” 배지를 부착하여 청소년 도우미가 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지인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 ③ 전략

#### 가. 홍보

- 모든 교회는 ‘청소년 평화세상 만들기’ 현수막을 교회 정문에 부착한다.
- 온 교우들의 차량 뒷창에 ‘청소년 평화세상 만들기’ 스티커를 부착한다.
- 온 교우들이 운영하는 업소에 “청소년 도움의 집” 스티커를 부착한다.
- ‘청소년 평화세상 만들기’ 포스터를 부착하고, 신한 아름다운 평화세상 카드를 발급 받는다.

#### 나. 실행

##### [청소년 안전망]

- 각 교회는 업소를 방문하여 “청소년 도움의 집” 스티커를, 차량은 “청소년 도우미” 스티커를, 개인은 “청소년 도우미” 배지를 부착하게 한다.
- 각 교회는 이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을 교회에 모아 참여함을 감사하고, 청소년 유·위해 사건 발생 시 행동 요령을 교육한다.
- 정기적으로 이들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 [청소년 자체 평화세상]

- 이 운동을 홍보하여 참여할 교목, 교사, 학원선교사를 모집한다.
- 이들이 청소년 리더들에게 이 운동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도록 한다.
- 청소년 스스로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 범위 이상의 것은 교목, 교사, 학원선교사가 함께 해결해 나간다.

- 리더들을 모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결집력과 운동력을 키운다.

#### [청소년 위기관리센터 구축]

- 센터에 참여할 법조계, 의료계, 상담계 전문가들을 모집한다.
- 피해자 및 가해자 모임 및 학부모 모임 등을 구성하고 지원한다.
- 지역별 센터를 구축하고 병원 등과 연계하여 운동력을 키운다.

### 3) 실행한 일(2005~2006. 9)

- ① 청소년 평화세상 만들기 기자회견을 통하여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됨을 언론 보도하다.
- ② 2005년 연회별 남선교회 수련회에서 남선교회가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기로 의결하여 전국남선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 ③ 2005년 9월 3일 천안지역 지역 발대식 가졌다. 이 발대식 전, 후 천안지역 1,000여 개 업소에 “청소년 도움의 집”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 ④ 2005년 10월 4일 사단법인 한국운전기사선교연합회가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하고, 연합회 소속 약 6,000대가 전국에서 운행 중이다.
- ⑤ 2006년 4월 12일 주)신한카드와 청소년 평화세상 만들기 운동 조인식을 갖고 신한아름다운평화세상카드를 발급을 시작하였다.
- ⑥ 2006년 4월 12일 방승인 이혁재 집사를 법인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 ⑦ 2006년 7월 29일 청소년 평화세상 만들기 Step by step 정부최초 3호 인증을 받다.
- ⑧ 2006년 8월 12일 광화문 광장과 종로2가 피아노 거리에서 「세계 청소년의 날, 거리 축제」공연을 실시하였다.
- ⑨ 2006년 9월 사단법인 「아름다운 청소년들」철원, 화천지회를 설립하였다.
- ⑩ 민간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화천 청소년수련관, 철원 청소년수련관, 강북 청소년수련관 등을 수탁하여 운영하려고 수탁 신청 중이다.

### 4) 추진할 일(2006. 10~2008. 10)

- ① 정부최초 인증 프로그램인 ‘청소년 평화세상 만들기 Step by step’ (7월 30일~8월 12일)의 실행을 통한 대 사회적 이슈 끌어내기 사업을 전개한다.
- ② 청소년 100여명의 국토대장정을 통하여 청소년 평화세상 만들기 운동을 홍보하고 전국 10개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 ③ 부산, 울산, 경주, 대전, 대구, 청주, 천안, 수원, 인천, 서울에서 시·도지자체와 연계한 지역 발대식을 실시하며, 이 발대식 시 지역에서의 대 사회적 감리고 위상을 정립하는

대 사회적 퍼포먼스를 개최한다.

- ④ 8월 11일 세계청소년축제를 통하여 국내외에 청소년 평화세상 만들기 운동을 알리고 청소년 평화를 이루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 ⑤ 전반기 중 약 200,000대가 소속한 전국 개인택시조합과 이 운동을 함께 전개해 나가도록 협력하고, 경찰청,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각 학교와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교육한다.
- ⑥ 5월 “청소년의 달”에 참여 교회에서 청소년 도움의 집, 청소년 도우미 차량, 청소년 도우미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하여 하나의 공동체로 만남의 장을 제공한다.
- ⑦ 지역별 청소년 위기관리 센터를 구성하여 학교 폭력 피해자 학부모 모임 및 가해자 학부모 모임, 피해 및 가해 학생 모임 등을 구성하여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전개하여 이 운동이 중단되거나 미약해지지 않도록 지도해 나간다.
- ⑧ 전국 교회에 청소년 평화세상 만들기 포스터와 프랭카드를 부착하여 감리교회가 이 운동의 주체자임을 알리고,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기관임을 알린다.
- ⑨ 신한 아름다운평화세상 카드를 발급하여 청소년 평화세상 만들기 기금을 조성하고 청소년 평화세상 만들기 운동을 홍보한다.
- ⑩ 수탁한 청소년 수련 시설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들과 지역사회에 감리교회가 미래 세대 비전세우기의 주역임을 알린다.

## 5) 평가

- ①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의 이미지를 대사회적으로 높이는데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청소년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일이라고 판단된다.
- ② 전 감리교회가 개체교회를 포함하여 지방회와 연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 지역별로 참여의 차이가 있다. 전국적으로 지역의 특별 청소년 문제 이슈와 함께 청소년 평화세상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 ③ 신한 아름다운 청소년 카드 만들기 운동이 홍보 부족으로 실적이 저조한 상태이다. 남선교회 뿐 만 아니라 개체교회 여선교회원들과 청장년회원들이 카드 발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④ 현재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단법인 「아름다운 청소년들」은 인력과 재력에 있어 열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다. 인원 충원과 사무실 공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 ⑤ 사단법인 「아름다운 청소년들」 활동은 모두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전략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 5. 희망을 주는 사회선교와 봉사 및 복지 시스템 마련

▶ 사회선교부 · 사회봉사부 · 복지법인부

### 1) 목표

- ①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의 대 사회적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각각의 흩어지고 나누어진 사회복지선교적 힘을 결집하여 연회와 지방 및 개체교회를 네트워크화 한다.
- ②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의 본부 행정의 효율적 협력 시스템 마련을 위한 선교국과 사회평신도국 및 사무국의 사회복지선교 업무를 통합 조정 한다.
- ③ 대사회적으로 홍보되지 않은 선한 사회복지선교적 사업들을 발굴 홍보하고 실무기관들을 색인 자료화하여 누구라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2) 내용

- ① 사회선교협의회와 사회복지협의회 및 시설장협의회 소속 각 기관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구체적인 홍보 D/B 시스템을 만든다.
- ② 선교국 사회선교부는 희망프로젝트의 상생목회 실천과제를 통한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와의 “1도1농 교회 자매결연”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감독회장의 희망투어에 전국 각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일선 사회선교기관과의 연결을 통해서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의 격려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사회평신도국이 주관하는 연회와 지방단위의 사회평신도부 총무들과 연대 협력하여 희망투어가 그 지역의 진정한 희망 운동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사회평신도국 사회봉사부는 희망프로젝트의 사회봉사단 실천과제를 통한 조직과 전국사회봉사단대회를 개최한다. 이미 개체교회별로 전개되어 온 사회봉사사업을 감리교회 전체로 네트워크화 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훈련하는 일에 선교국 사회선교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그 지역의 현황과 봉사의 방법등에 대해 함께 세미나등을 통해 구체화 한다.
- ④ 사무국 복지법인부는 희망프로젝트의 복지법인과 장학사업 실천과제를 통한 행정제도의 개선과 장학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특별히 복지법인 설립과 유지 관리에 있어서 수요자들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신속하고 그 상황에 적절하게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특별히 사회선교협의회 소속 사회선교기관들이자 사회복지협의회 소속 복지기관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정부나 시,도에서 위탁하는 시설들에 응모할 때 법적차원에서 감리

교본부의 총체적인 힘이 결집되어 수탁할 수 있도록 행정제도 개선에 지혜를 모은다.

### 3) 실행한 일(2005~2006. 9)

- ① WCC 브라질 총회보고회 및 WCC,CCA 실행위원회 에큐메니칼 간담회 개최(선교국)
  - ②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1敎1村운동”을 위한 감리교 청년 농촌.도시 사랑나눔 수련회
  - ③ 감리교환경선교대회-빈그릇 밥상운동 선포식 및 다양한 문화공연
  - ④ 성결교 선교국과 사회선교 교류에 관한 회의
  - ⑤ 외국인근로자협의회 소속 4개교회 설날맞이 위로회
  - ⑥ 자원봉사자 교육 공동주관 -2005년 3개연회와 2006년 중부연회와 2회(사평국)
  - ⑦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매년 여름방학 중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우와 함께
  - ⑧ 기술자원봉사 실시-청장년선교회 기술자원봉사단과 협력하여 독고노인과 저소득 가정을 위한 주택수리 기술봉사 활동 2003년부터 실시.
  - ⑨ 사회봉사단 조직-연회가 사회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도록 독려,사회봉사단 협의회 조직 운영, 전국사회봉사단 대회 준비 및 개최,연회사회봉사단 재해재난 및 불우이웃돕기 협력사업모색
- 사회봉사인증서발급과 출연재산 처리 및 사회복지시설 설치 지원(사무국)  
사회복지사업발전 연구 소위원회 회의 및 신규프로젝트 공모를 통한 산하시설지원  
사회복지에큐메니칼운동 참가 및 해외 선지복지시설 견학교육

### 4) 추진할 일(2006.10~2008. 10)

- ① 사회선교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시설장협의회등이 연합하여 “감리회 사회복지선교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을 극대화한다.
- ② “감리회 사회복지선교 공동협의체” 주관으로 감리회 사회복지선교대회를 범교회적으로 개최한다.
- ③ “희망투어”중에 일정지역 단위의 감리회 사회복지선교대회가 그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감리회 사회복지선교 공동협의체”가 희망프로젝트 실천본부와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기획 실천한다.
- ④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이제까지의 개별적 소규모 프로젝트가 아닌 “감리회 사회복지선교 공동협의체”에서 기안하고 본부 각국간의 협의가 일원화된 본부 차원의 희망프로젝트를 가지고 응모한다.
- ⑤ “감리회 사회복지선교 공동협의체” 주관으로 감리회 사회복지선교 사안 별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감리회 사회복지선교 연합 소식지를 발간한다.

- ⑥ 이제까지의 개별적 부서차원의 자원봉사 운영 및 교육시스템을 “감리회 사회복지선교 공동협의체” 주관으로 종합적으로 진행한다.
- ⑦ 사회복지선교홈페이지 운영과 사회복지선교 인재양성 및 재 교육을 위한 교육수요조사

## 5) 평가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의 실제적 성과가 사회적으로 열매맺기 위해서는 사회선교부, 사회봉사부, 복지법인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네트워크구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각부서의 실무자인 부장들의 연대로부터 시작하여 각국 총무들은 물론이거니와 각국의 유관 단체인 사회선교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시설장협의회 간의 협력과 공동프로그램진행이 점차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제언한바처럼 “감리교 사회복지선교 공동체협의회”를 이른 시일안에 구성하여 그 틀안에서 실행하고자 계획된 사업들을 함께 진행해 나간다면 희망교회운동과 희망을 주는 본부로서의 희망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이다.

## 6. 평신도 자원발굴과 참여 확대

### ▶ 평신도부 · 사회봉사부

#### 1) 목표

- ① 인력자원 관리의 시스템화를 통해 유능하고 적절한 인력이 정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평신도단체들의 유기적인 활동을 통해 평신도단체들이 정책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평신도지도자들의 영적 각성과 평생 배움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④ 평신도단체들이 앞장서서 차세대 평신도지도자 양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후원하도록 한다.
- ⑤ 지방 사회평신도총무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방 사회평신도부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 간의 정책에 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2) 내용

- ① 평신도대학을 계속 운영하여 감리회 사업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평신도지도자들이 신학적, 영적으로 훈련하고 재무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한다.
- ② 전국적인 감리교 평신도들의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③ 평신도 연합신년하례회나 연합영성세미나 같은 연합사업을 시행하고 모든 평신도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협력한다.
- ④ 청장년선교회 미조직 지방을 독려하여 지방청장년선교회를 조직하도록 함으로써 평신도단체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 3) 실행한 일(2005~2006. 9)

### ① 평신도대학 개강 및 1·2학기 수업

가. 개강 일시 : 2006년 5월 3일(수)

나. 등록인원 : 총 40명 (남 22명, 여 18명 / 장로 22명, 권사 15명, 집사 2명, 사모 1명)

다. 강의 시간 : 1학기(5월), 2학기(9월)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5시

### ② 지방 사회평신도부총무 정책협의회

가. 전국

· 2005. 5. 9~10    황성 현대성우리조트 100명(194지방)참석

· 2006. 4. 24~25    천안 상록리조트 107명(194지방)참석

나. 연회별 : 10개 연회별로 순회 개최(2005년 9월~12월)

### ③ 평신도단체 연합신년하례회

· 2005. 1. 4        정동제일교회 약 700명 참석

· 2006. 1. 10       정동제일교회 약 720명 참석

### ④ 평신도단체 전국·연회연합회장 수련회

· 2005. 10. 7~8    평창휘닉스파크 전국·연회연합회장 29명

- 선교단체 사업 협의 및 연합사업 토의

- 남·여·청장년선교회가 함께 1천만원을 모아제주선교대회시 제주도 사회복지시설 10곳 지원

### ⑤ 평신도단체연합 가정세미나

· 2006. 10. 9~11    공주 변화산기도원 평신도지도자 150여 명

- 선교단체연합 영성훈련 및 가정세미나

### ⑥ 세계감리교(WMC)대회 준비기도회 :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첫째 월요일에 정



동제일교회에서 평신도단체 연합으로 WMC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개최.

- ⑦ 지방 청장년선교회 신규 조직 : 2005년 15개 지방, 2006년 4개 지방
- ⑧ 평신도 인력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정책TF 내에 별도 팀을 구성하여 세부 계획을 협의 중임.

#### 4) 추진할 일(2006. 10~2008. 10)

- ① 평신도대학
  - 가. 3학기 : 2007년 5월
  - 나. 4학기 : 2007년 9월, 1기 졸업
- ② 지방 사회평신도부총무 정책협의회
  - 가. 전국 : 2007년 5월
  - 나. 연회별 : 2006년 11월~12월, 2007년 10월~11월
- ③ 평신도단체협의회 : 연 3회 이상 개최하여 정책과 연합사업 협의
- ④ 평신도지도자 영적대각성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
- ⑤ 평신도 인력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 계속 진행.
- ⑥ 평신도단체 연합신년하례회 등 연합사업 계속 실시
- ⑦ 지방 사회평신도부총무, 평신도단체와 협력하여 청장년선교회 미조직 지방에 신규 조직토록 독려 및 협조 계속 실시

#### 5) 평가

오랜 기도와 준비 끝에 2006년 5월 개강한 평신도대학은 2년 과정으로 학문적인 신학체계와 복음을 통한 실천적인 삶의 질을 복합적으로 공부하는 교육프로그램이며,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감리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감리회 엘리트 지도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어 40명의 평신도들이 1기 수강생으로 등록하여 수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07년 9월 첫 졸업생이 배출될 예정이다.

또한 평신도단체들의 연합과 협력에 많은 성과가 있어서, WMC대회를 위한 준비기도회에 남·여·청장년선교회, 장로회, 여장로회, 원로장로회, 교회학교연합회, 실업인선교회 등 모든 평신도단체가 적극 참여하여 평신도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로 준비하였고, WMC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초석이 되었다. 그리고 평신도선교단체 전국·연회연합회장 수련

회를 통해 선교단체의 사업을 협의하고 연합 사업을 토의하여, 남·여·청장년선교회가 함께 1천만 원을 모아 제주선교대회시 제주도 사회복지시설 10곳을 지원하는 등 협력의 모범을 보였으며, 2006년 10월에는 평신도단체연합 가정세미나를 통해 평신도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사회평신도국 2007년 주제가 “영적 각성으로 거듭나는 평신도” 이고 영적대각성을 통한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아 평신도들이 희망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평신도지도자의 영적 훈련을 위한 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감리회 발전에 앞장서는 평신도가 되도록 할 것이다.

## 7. 합리적인 본부행정과 정보전산화

▶ 행정부 · 역사전산부

### 1) 목표

- ①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통해 본부조직을 합리화한다.
- ②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한다.
- ③ 감리회 행정서식을 통일한다.
- ④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본부 프로그램을 홍보한다.
- ⑤ 역사와 전산업무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 2) 내용

- ① 감리회본부의 조직을 전임감독제에 걸맞고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체제로 개편하며, 직원의 개별적 직무분석을 통해 과업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인원의 배치와 직원 인사의 공정성을 도모한다.
- ② 전국 교회와 교역자의 데이터베이스로 각종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할 수 있으며, 개체교회와 연회 및 총회 위원들에게 팩스, 이메일,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 ③ 감리교회 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문서와 자료에 대한 통일성을 기한다. 발간되는 모든 서적은 일련번호를 갖추어 목록과 색인을 통한 자료 활용이 가능하게 한다.

- ④ 홈페이지를 통해 본부 정책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며, 감리교회 주소록과 인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서비스 한다. 또한 홈페이지 리모델링과 각 국별 홈페이지 내용을 강화하여 회원들에게 친근한 감리교회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 ⑤ 문서와 영상, 음성 및 감리교 역사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제공한다. 목회자들을 위한 무료 FTP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도용 신앙교육 페이지를 신설하여 역사와 신앙교육의 산실이 되게 한다.

### 3) 실행한 일(2005~2006. 9)

- ① 2005년 7월부터 3개월 동안, 전문 컨설팅 업체인 와이즈포스트에 본부 직무분석 및 조직 인사 컨설팅을 의뢰하여 그 결과물을 2006년 1월 26일 제5차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이후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는 본부임직원에 대한 연봉제 실시를 제창하여 2006년도 첫 시범적 출발을 하였고, 본부 조직개편에 대한 제안은 6월 30일 제6차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결의되어 현재 장정개정위원회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시간적 제약으로 9월 22일 입법의회가 불투명한 상태다.
- ② 온라인 시스템은 현재 민원부서의 민원서류 등이 본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화 되었고, 평신도 인력 데이터베이스는 평신도국와 전산부에서 작업 중에 있다. 전국 교회 주소 및 팩스 데이터베이스는 전산부에 마련된 성직자 데이터베이스의 시작으로 중복될 필요가 없게 되었다.

### 4) 추진할 일(2006. 10~2008. 10)

#### ① 감리회 행정서식 통일

##### 가. 본부사용행정서류목록

- 1.기안문서 2.품의서 3.협조전 4.대외발송공문(본부, 각 국, 실, 원) 5.결근계(휴가신청서, 출장보고서) 6.표창장(감사장, 상장) 7.공적조서(징계의결요구서, 징계의결서) 8.각 국의 헤드레터 9.임직원의 명함(점자포함) 10.추천서

##### 나. 본부 및 연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서류목록

- 1.기안문서 및 대외발송공문 2.재직증명서(한글, 영문) 3.경력증명서(한글, 영문) 4.소속증명서(한글, 영문) 5.안수증명서 6.소속이동청원서(한글, 영문) 7.담임자증명서 8.직인증명서 9.교회통계표 및 개체교회 행정서류 10.부담금완납증명서

##### 다. 교리와 장정에 첨부된 양식들

- 1.구역회보고서 2.감리사보고서 3.준회원보고서 4.기관목사보고서 5.선교사보고서 6.선교

사보고서(소속연회) 7. 국외교역자 동태보고서 8. 전도사(선교사, 군목, 수련목회자)보고서 9. 수련목회자 지도보고서 10. 정(준)회원 휴직(퇴직, 퇴회)원서 11. 정회원 재허입우너서 12. 복직원서 13. 은퇴원서 14. 구역담임(부담임)결의서 15. 구역이임결의서 16. 기관파송청원서 17. 소속이동청원서 18. 서리담임전도사(임, 면)보고서 19. 전도사(임, 면)보고서 20. 추천서 21. 추천서(준회원허입) 22. 국외여행승인신청서 23. 출국신고서 24. 귀국보고서 25. 교회이동에 따른 교역자 이동보고서 26. 구역전도사 결의서 27. 생활비부담보증서 28. 소속청원서(임시) 29. 교회(개척교회)설립보고서 30. 교회폐지보고서 31. 교회위치변경보고서 32. 교회위치 및 지방소속 변경보고서 33. 교회명칭변경 보고서 34. 재단편입불가확인서 35. 교육기관설립보고서 36. 교육기관폐지보고서 37. 교회통합보고서 38. 영아세례청원서 39. 아동세례청원서 40. 세례청원서 41. 결혼예식 주례청원서 42. 이명증서 43. 회의록 4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45.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46. 교회규약 47. 교적부 48. 개인기록카드 49. 증명서발급대장 50. 비품대장 51. 원입인대장 52. 세례아동대장 53. 세례인대장 54. 임원대장 55. 장로신상카드 56. 감리교회 상장용지샘플 57. 지방회 레터지샘플 58. 통계표양식 59. 기부금명세서 60. 수련목회자이동청원서 61. 감사보고서 형식 62. 구역담임자보고서 63. 장로(자원)은퇴청원서 64. 교역자(임, 면)청원서 65. 지출결의서/정산서양식 66. 교인증명서 67. 교회시설 사용신청서 68. 소속이임청원서 69. 고소고발장 70. 기소장 71. 공소장 72. 상소장 73. 판결문 74. 연회정회원허입원서 75. 차량운행일지

## ② 행정제도의 연구와 개선

본부 내규를 장정에 맞게 개정할뿐 아니라, 본부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행정관리를 위해 내규를 연구하고 개선한다. 또한 본부와 연회의 행정과 제도에 관해 총회행정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연구 개선하고 발전시킨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제도, 교회 통계표 및 각종 보고서에 대한 연구와 개발, 감리사 지도치침서, 연회보고서의 통일화와 지방 및 연회회의록의 형식 통일안을 마련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효과적인 감리교회의 행정 시스템을 연구 개발한다.

- ③ 본부 임직원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사무자동화 기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무상으로 교육하는 정보화교육기초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여 임직원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 ④ 역사자료 중 인물사전, 선교사사전, 역사자료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콘텐츠 개발을 위해 먼저 설교 및 예화자료가 가능한 하늘양식 1991-2006년분을 데이터베이스하는 작업하고 있으며 일부는 감리회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공한다.

- ⑤ 영문 홈페이지의 내용을 강화하고, 리모델링 작업을 통해 세계화된 감리교회의 위상을 드높이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 ⑥ 본부의 각종 회의 자료를 공개하여 감리교회의 행정을 투명하게 하도록 한다.
- ⑦ 교역자 관리 프로그램을 제작, 관리, 운영하여 성직위원회와 은급부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처리한다.
- ⑧ 역사자료 관리 및 각 연회의 감리교회 문서관리 표준화 작업을 위해 박스 화일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서류 관리 방법과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 교육한다.
- ⑨ 각국 홈페이지(선교국, 교육국, 홍보출판국)의 서비스 강화로 신속한 정보제공과 중요한 자료 및 도서관매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 ⑩ 신앙교육(초신자, 속회지도자, 임원교육, 장로교육)을 위한 인터넷 사이버교육 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해 교육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 5) 평가

본부 조직개편에 대한 컨설팅은 마쳤으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컨설팅은 짧은 조사 기간으로 타 교단과의 벤치마킹이 부족했고, 미래지향적이고 감리교회 특색을 나타내는 개편이 되어야 하기에 조직개편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여 점진적인 연구와 개편이 필요하다. 예장 통합의 경우 10년 전에 장기간에 걸친 컨설팅을 했으나 총회에서 반영이 되지 못해 무산되었으며, 현재 기구개혁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기구개편을 하고 있다. 감리회 행정서식 개선과 통일은 자료수집이 끝나면 전문위원을 통해 연구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2007년 임원대회를 통해 전국 연회와 지방에 시달토록 할 것이다.

## 8. 미래 목회지도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실시

▶ 총회행정부 · 학교교육부 · 연수원

### 1) 목표

- ① 전문목회 지도력 양성: 급변하는 세상에서 전문목회 지도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하 3개 신학대학교 및 대학원의 교육 과정을 점검하여 감리교회가 요구하는 필수과목들을 이수하도록 한다.

- ② 교역자 수급 조절: 포화 상태를 넘은 감리교 목회자 수급에 대하여 각 신학대학원의 정원 감축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 한다.
- ③ 예비목회자 연수교육 실시: 양질의 전문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목회자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 ④ 정회원 연수 교육 강화: 현재 목회 현장에서 시무하고 있는 정회원들에 대하여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과목과 영성 훈련을 실시하여 시대 상황에 맞는 목회 전문가로 서게 한다.

## 2) 내용

- ① 전문목회 지도력 양성을 위하여 감리교 목회자가 되기 위한 통일된 신학 기본 과목, 감리교 목회자로서의 정체성 정립을 위한 과목, 영성 수련 과정 확충과 함께 각 학교 별 특성화 된 과목 등을 조화롭게 구성하여 신학교육 기관인 3개 신학대학이 목회자 양성을 위한 통일된 과목을 가르치도록 하며, 아울러 각 학교가 요구하는 각 학교에 특화된 과목을 배치하여 통일과 조화를 이룬 신학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 ② 교역자 수급 조절을 위하여 각 신학대학교 신학부와 대학원 졸업생의 수는 제한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등록금이 주 수입이 되는 현재의 재정적 상황에서는 학교가 그 수를 조절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각 학교의 의견과 상황을 수렴하여 교역자 수를 조절하는 여러 방법들을 연구한다.
- ③ 각 신학대학원 졸업 후 목회 현장에 나가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각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내용과 교회 사역에서 실제로 필요한 과목과 지식을 배우고 목회적 영성을 배양하는 전문 목회자 양성을 위한 예비목회자 연수교육 과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한다.
- ④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회원 연수과정의 과목을 실제 교회 상황에서 필요한 과목과 목회자들이 요구하는 과목들을 중심으로 재조정하고, 특강 등을 통해 정회원 연수 교육을 강화하여 현재 목회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

## 3) 실행한 일(2005~2006. 9)

- ① 전문 목회 지도력 향상과 예비목회자 연수교육을 위하여 각 신학대학의 신학부 및 대학원 과목들에 대한 리서치를 실시하였다.
- ② 정회원 5년차 교육을 마쳐야 지방의 임원이 될 수 있으며, 정회원 10년 차 교육을 마쳐야 감리사가 될 수 있게 하는 장정을 개정하여 현재 일영연수원에서 각각 3회차 씩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 ③ 정회원 연수교육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정회원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들을 현장 목회자들의 소리를 들어 결정하고 있다.
- ④ 목사 교시 및 수련목회지 교시를 실시하였다.

#### 4) 추진할 일(2006. 10~2008. 10)

- ① 감리교 전문목회자 지도력 양성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 ② 감리교 신학과 정체성을 위하여 현재 각 신학대학원에 필요한 과목과 각 신학대학원이 특성화에 필요한 과목들을 조사한다.
- ③ 교역자 수급 조절을 위한 각 신학대학교 총장 및 대학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 ④ 교역자 수급 조절 방안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 ⑤ 수급 조절을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 ⑥ 예비목회자 연수교육 실시를 위하여 연수 시설 조사, 연수 피교육자 수급 방안 연구, 재정 확보 조사 등을 실시한다.
- ⑦ 정회원 연수 과목과 방법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현장 목회자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 5) 평가

- ① 고등성직 관련 업무에 있어 현재의 체계로는 교육국과 교역자수급대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분명히 규정하여야 한다.
- ② 교역자 수급 문제에 있어 각 신학대학원의 인원 조절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에 공감하고 있으나 등록금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신학대학원의 반발이 크다. 각 신학대학원의 재정적 지원과 운영 체계에 대한 특별한 연구와 조치가 필요하다.
- ③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가 되기 위하여 전체 교역자의 화합과 협조가 필요한바 학연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9. 은급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장기적 대안 마련

▶ 은급부

### 1) 목표

- ① 사업 시행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대한다.
- ② 수입확대와 지출억제를 위해 노력한다.
- ③ 사업의 항구적 지속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한다.

### 2) 내용

- ① 은급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 여론의 해소를 위해 교역자 대표와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현장의 요구와 여론,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협의하여 은급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은급관리 시스템(EPMS System)을 Web상에 공개하여 교역자 개개인이 본인의 인사기록과 각종 부담금 납부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 ② 효율적인 기금관리로 보다 많은 이자수익을 창출하고 적극적인 수익사업의 전개로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교역자의 철저한 인사관리를 유도하여 탈법적 지출을 봉쇄하는 일과 부담금을 바로 내도록 유도하는 일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③ 2000년 정회원기여금 수납이 시행되면서 교회은급부담금으로 시행되던 은급사업의 성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 같은 목소리는 은급제도의 항구성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더욱 증폭되었고 이는 일정 부분 정당성을 갖는 견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은급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해 볼 때,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은급사업의 합리성과 항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범사회적으로 시행이 시작된 '퇴직연금제도' 성격을 도입한 감리교만의 특화된 연금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 3) 실행한 일(2005~2006. 9)

- ①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은급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하였고 새로운 제도 모색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현장 교역자 및 전문인사 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은급재단



이사회 내의 운영위원회에 참석·연구케 하였다.

- 교역자(은급대책위원회 위원장) 1명, 전문 연금 및 금융 경영인 1명, e-비즈니스 전공 학자 1명을 위촉. 은급재단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Web상에 공개하여 교역자들이 직접 본인 관련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② 이자수입 확대를 위해 Fund상품 등을 통한 기금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수입원 창출을 위해 '삼성 070 영상전화 보급사업' 과 기독교 전용 추모관 (납골원) 분양 사업을 해당 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에 있다.
- ③ '퇴직연금제도' 성격을 도입한 새로운 제도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였고, 은급제도와 병행하여 교역자들의 유고시에 보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 기업체의 산재보험을 대신할 수 있는 '감리교 안전보험제도(가칭)' 를 연구 중이다.

#### 4) 추진할 일 (2006. 10~2008. 10)

- ① 기본골격이 마련된 새로운 제도를 구체화하고 법규화 한다.
- ② 2007년도 입법화를 목표로 치밀한 연구 및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필요할 시에 수시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과 새로운 제도의 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다.
- ③ 새로운 수입원 창출을 위해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 ④ 탈법적 지출 방지와 부담금을 바로 내도록 유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⑤ 교회은급부담금 수납 방식의 개선을 연구·시행할 것이다.

#### 5) 평가

## 10. 기본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개발 청사진

▶ 재산관리부·회관관리부

#### 1) 목표

기본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인적 시스템을 잘 구성하고 장 단기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극대화하여, 자산의 증가를 통해 고유목적사업의 확장을 이루어 회당의 감리교회를 실현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 2) 내용

- ① 건물의 시설이나 설비의 노후화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성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인력관리시스템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금촌묘지에 대한 장기적인개발 및 관리대책을 수립한다.
- ③ 본부이전에 대한 구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한다.

## 3) 실행한 일(2005~2006. 9)

- ① 기본재산 전체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계획을 검토, 수립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며 건물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임대운영 관리를 위하여 노후된 시설을 점차적으로 교체하여 최상의 건물상태를 유지하며 전문 인력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 ② 금촌묘지관리를 위한 관리인을 채용했으며 차후 묘지전반에 대한향후 관리와 장기적인 개발에 대해서 검토한다.

## 4) 추진할 일(2006. 10~2008. 10)

- ① 장기적인 본부운영의 방법으로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독립된 단독본부건물이 필요하다.

## 5) 평가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는 본부가 광화문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본부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감리교 시작인 정동 및 교통이 편리한 서울외곽지역에 단독본부건물을 세워 본부사무실 및 각종기관과 단체, 감리교박물관, 선교센타 등을 구성한다면 21세기 선교에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단독본부건물 마련을 위한 재원마련은 정우빌딩, 회현상가를 매각한 비용과 서울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감리회관16층(본부), 13층(연회및각단체) 2개층을 임대하여 그 비용을 마련하면 가능하다.

## 본부 정책과 행사기획 지침

1.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먼저 기도로 준비한다.
2.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한다.
3.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에 맞추어 일체감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4. 모든 행사는 연회와 협력을 통해 조화를 이룬다.
5. 부서간에 정보를 공유하며, 적극적인 협력 시스템을 갖춘다.
6. 개체교회의 요구를 수렴하며, 현장 상황과 현실성을 적극 고려한다.
7. 주요행사는 교회력과 기념주일에 따른다.
8. 일과성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9. 예산은 합리적으로 세우고 효율적으로 운용한다.
10.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종 매체와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11. 감리교회 시설과 인적자원을 우선 활용하며, 유관행사는 통합하여 성과를 극대화한다.
12. 행사보고와 평가를 명확하게 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공과에 따라 포상한다.

